

망세팔년

예수성표

누가복음권서

심양
문광서원
간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는 존 로스 목사가 이끄는 성서번역팀이 번역한 최초의 우리말 성서로서, 1882년에 만주의 심양(瀋陽) 문광서원(文光書院)에서 출간된 것입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영국성서공회와 스코틀랜드성서공회로부터 이 번역 원본을 각각 한 부씩 기증 받고 이것을 기념하려고 영인본을 출판합니다. 두 원본은 번역자를 대표하여 존 로스 목사가 표지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This is the facsimile of the first Korean translation of a portion of the Bible, the Gospel of Luke, translated by John Ross and his team, and published in 1882 by Munkwang Publishing House in Shenyang, China. Considering that the copies of the original publication have been released to the Korean Bible Society by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and the Scottish Bible Society as a gift in recognition of our partnership together in the Gospel for over 100 years, we are pleased to commemorate such generosity and kindness from our sister Bible Societies by publishing this facsimile edition. The covers of these two original copies carry the signature of Rev. John Ross, on behalf of his translators.



St. Luke's Gospel

H570-3R, 500; August 2003

Printed in Korea

디기 열이 사람이 부술지어 우리가운데 일운 일을 괴술하되 처음으로
 붓디 친이 보고 도를 면하년 자 우리를 준비 갓티 하엿기 로니 또 하엿여
 모든 일을 자 세이 근원을 좃차 치레 토써 귀인 데 오비 노의 존전에 양달
 하문 귀인 불니 보인 비의 실정을 알게 하미 라 유디 왕 해루 셔를 당하엿여
 아 비야 자 손의 반넬에 제사 일 음은 사가 라 요 그 체 는 이 룬의 후에 일 음
 은 이 니 사 비 이 니 두 사람이 하느님의 압페셔 올운 자 라 주의 계명
 파 네 를 좃차 하엿여 흠이 업스되 다 못 아 들 이 업스 문 이 니 사 비 이 잉 터
 못 하 고 두 사람 의 나 이 또 한 늘 그 미 라 마 즘 사 가 라 그 반넬을 의 지 하엿여
 제 사 의 직 분을 하느님의 압페 하엿고 제 사 이 규 레 를 좃차 제 비 를 어
 더 주의 면 에 들어 가 분 향 하 니 씨 여 못 비 성 은 밤 게 셔 비 터 니 주의
 사 자 사 가 라 의 게 보 이 고 향 단 올 운 견 에 셔 거 늘 사 가 라 보 고 황 망 하 엿여
 무 셔 워 하 니 사 자 불 너 같 으 되 사 가 라 는 무 셔 워 말 나 너 의 비 년 거 시 이
 두 들 터 시 니 너 의 체 이 니 사 비 이 장 차 아 들 을 나 아 너 를 주 리 니 일 음 을

요안나라 하라 너 장차 잇거 하며 즐거워 하고 또 그 나를 인하여 잇거
호자 만을 기시 주의 압페서 이 아희가 크미 되어 청주와 독주를 다 마시
디 안고 성신이 오말 의티로 부터 너 하리 니 데 반드 시이 살 일 사람으
로 하여 금 만이 주 그 하느님께 돌아 가게 하고 데 이 니 아의 성정 싸
능하 무로 써 주를 압셔 힘하여 아 받된 자의 마음으 로 하여 금 아 들을
돌아 보게 하 고 거스리 던 자로 올운 자의 디 헤여 돌아 가게 하 고 주를
위하여 온 전하 빅션을 예비 하 리라 하 니 사가 라 사가 게 갈오 되 니 가이
무 들 쉰 너의 체가 또한 들 거 시 니 너 엇 디 이를 알 니 요 하 니 사가 더 담하
여 갈오 되 나 는 감 발 열 이 니 하느님의 압페서 모 시년 자로 불이 물 받
드 리 네 게 말하 여 이 복음으 로 써 보하 노 라 그 리 나 네 반드 시 버 버 리 되
여 능히 말 티 못하 고 인을 일으 노 낄 에 잇츠 문 서 날으 리 반드 시 용 혀 하
리 라 하 년 말을 낫 디 안으 미 라 하 더 라 빅 션 이 사가 라 들 기 디 려 그 올의
성년 안 게 이 스 불 기 기 이 네 기 러 니 나 오 리 능히 더 부 려 말 티 못하 니 빅
성이 그 성년 안 게 서 현 성 본 줄을 알 고 데 산 화 현 하 고 사 흠 더 이 어 리



되니라 그 직사의 날이 차미 집으로 돌아 가니 후에 그 처이니 사빅이 영
티하다 라 순긴디다 솟달에 말호 문주 나를 돌아 보와 붓구려 우물인
간게 싯고 이갓티나 를 뒤 접호미라 호더 라 여 솟달에 날으러 사자 갑 발
열이하느님의 보닐 돌밭드러 가니 닌 붓튼 고을에 날으니 일음은 나
살닐이라 한체네 게 남호니 다 빛의 일가 사락 일음은 요섭이라 년 자게
덩 혼한 체네 일음은 미 리암이라 사자 나 아가 같으되 은 해를 밧은 자야
편인호라 주 너를 항게 호여 네가 은 통을 어 딛다 호니 체네 보고 그 말
을 황망 호여 이엇더 한운 안인 가 싯 각 호니 사자 같으되 미 리암은 무서
워 말나 너은 해를 하느님 으게 어더 장차 잉티 호여 아들 을 나을 이니
그 일 음을 예수라 칭호리라 데 장차 크미 되여 지극히 높판이의 아들
이라 칭호디니 주 하느님이 그 조상 다 빛의 위로 써 주워 긴 닌 야 곱
의 집에 왕 노릇 호여 그 나 라 이다 호미 업스리라 호니 미 리암이 사자 게
닐으되 너 덕인 티 못 호여 시니 엇디 이런 일이 이스리요 사자 뒤 답 호여
같으되 성신이 장차 네게 강 남 호여 지극히 높판이 가 능 호 무로 네게 같



동후리니 일노써 나년 비성인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또 너
의 친척이니 사벽이 불너 잉태되 못하던 자가 늘마에 잉태한 디 이제 여
숫달아니 하느님은 능히 못한 비업너니라 마리아의 갈으되 나는 주
의 시키니 천사의 말갓더니 게응험호소서 하니 사자 아녀서 나가니
라셔여 마리아의 불어나 급피산통게 유되 한 고을 게느르러 사가랴
의 집에 들어가이니 사벽으게 문안하니 이니 사벽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셔여 티가 그 비씩에 셔쉴닐고 또 이니 사벽이 너키 성신을 받은
다라 크게 소리하여 갈으되 체네가운데네가 축슈호물엇고네 잉태한
비또인 축슈호물엇도다 우리 주의 오맘이 너게나아 오니 이어드러
일니고 문안소리한 번너 귀여들니 티갓거너 비씩에 셔쉴니 너 밋
으루로 복이 잇넌 거시 주의 말한 비응허하리라 마리아의 갈
으되 내마음이 주를 돕피고니 병흔이나를 구완하느니라 으루
써즐거워홀거시 데시 비의미 약호물들아보미니 이제는 만세여나를
목잇다 말호를 거시 전에 능한이 가나를 위하여 더사를 일너시니 성인술



어온디라그일음이어그은혜가드려워하년차으게밋쳐디더여개를
기시라테팔노써힘을비푸러마음에고만을뽀년차는혜터며현세잇
년차는그위여니려티며나즌자를거천하여주린차는도운음식으로
써비부루게하여부자로하여금공연이돌아가게하여좋은일을뜻
들눈암라힘과그자손으게기닌은혜를기특하시미나우리조상파말
하심갓다하고이여미디음이더부러석달을향게하고집으로돌아가
나라이니사뵈어나을기약이차아들을나으니닌니와친척이쥬 큰
은애로써주물듯고 부녀함게즐거워하고야들이만애와그아들을
위하여할내를 힘하고그아밤의일음으로써서기라라일음하니그
오밤이말하되안이라맛당이요힌니라일음하니못사람이같이되너
의친척에이일음이하나도업다하니이여형용으로써그아밤의게갈
으치되무순일음으로써일음을생하니아밤이분반을청하여써갈으
되요인니라하니못사람이괴이네길세그입이긋열니고혀가풀어
터이여하느님을 찬니하여말하니닌니다무셔위의일음을오은유되



산능에^뉘뉘^어뉘^든년^자마^음에^간딕^하여^갈오^되이^아희^가장^차엇^더하^리
요^호문^주의^손이^함게^한다^하더^라그^아밤^사가^라너^닉키^성신^을
바^다말^이말^하여^갈오^되츄^슈홀^라주^이슬^일하^느님^이여^그빅^성
을^돌아^보와^속하^고주^넋적^선디^의입^을부^탁하^여말^한비^갓티^우
리^를위^하여^구완^하년^주를^그종^대빛^의집^에서^우니^곳우^리를^모든^원
원^슈와^미워^하년^자의^손에^구완^하여^은혜^를우^리조^상으^게히^하고^또
성^약을^괴록^하여^시니^곳우^리조^상압^라함^으로^터부^러발^하신^비밍^세
라^우리^를원^슈의^손구^완하^여무^셔우^미업^시평^성에^주의^암페^셔성^성
과^의로^써성^길디^니아^희야^너를^창차^지극^기놈^꾼이^의아^들이^라불^을
거^시너^주를^암셔^히하^여그^길을^예비^하고^우리^하느^님의^은혜^로
말^무야^죄샤^호무^로써^그빅^성으^로하^여금^구완^하물^알게^하리^니일^노
써^시박^빛치^우으^로붓^터우^리게^남하^여써^어두^운계^거한^자와^죽은^그
늘^에잇^년자^으게^빛치^우고^우리^발을^편안^한길^에안^도하^리라^하더^라
그^아희^잘인^여성^령이^곳거^하여^들어^에거^하여^이슬^일의^빛타^나년



날에 날이더라

누가 데이장

당시여기산아고사독이조세를니여턴하로호여금다호적을올니년
데쿠레노는수리아방벽이되야슬세여호적이처음으로히호년태뭇
사람은가호적을올니고각각그고을노돌아가니요섭은다빛의죽보
라고로가니니의나살일고을노죽차유디다빛의고을에올나가니베타
니염이라그빙문한비채마리암이무잉티한자로함게호적을올니터
니마즘거괴셔아희나틀괴약이차이여맛아들올나아비로써싸고말
궁이여누이문직팀에용납할곳이업스미라그셔여양치년쟈들어에
거호여밤에그물을이를디키년테쥬의 사쟈강남호여쥬의 영화리
운밋치들우밋치우거늘크게무셔워호니사쟈닐니같이되무셔워말
나니너의게되희할복음으로써턴호니이는뭇뭇성을위할거시라
오늘다빛의고을에너의을위호여구쥬를 강성호니곳기리스토
라너의어린아희를비로써싸말궁이여누이물보고표를삼으라호고



문득 열어던사이사자파한게하느님을 칭찬하여 같으되 지극히
좁은 자의 가운데는 영화가 하느님 의게 돌아가고 싸에는 하느님
사랑하년 사랑으게 화평하니 라고 하고 모든 천사 새나 하늘 노을 나가니
목양인이 서로 불러 같이 되베틸 염에 가주 우리게 알구인 비밀을 보
자 하고 이어 급피가 마리아 파요 섬 파노 열인 아희를 궁이여 누이 들차
자 보고 즉시 어린 아희를 위하여 말한 비로써 보하니 듯년 자다 목인의
말한 비를 고기이네기 되고 오직 마리아만이 모든 말노써 마음 간슈하여
유렵하더라 목인이 돌아와 본 비와 들은 비 다 천사의 말갓트 물인하여
영화를 하느님 의게 돌리고 칭찬하더라 아희를 위하여 할배 하년
팔일이 차미그 일음을 예수라 칭하니 꽃이 영되기 전에 천사 칭한 비라
정한 날이 차미모쇼의 법을 의지하여 즉시 더리고 예루사렘에 올라가
써주 게더리고 주의 법에 쓴 비갓터 무론 첫 아 들은 반드시 하느님
의 성자라 칭하고 아 올라 제물을 더리는데 주의 법에 본은 비갓터
한쌍 반구와 곡 두기식기 비들기 로써 하더라 예루사렘에 한 사람이 이



스니 일음은 시몬이니 그 사람이 올꼬 또 성심이 이너더라 이 삼일씩 성
 이 위로 밧기를 기다리고 또 성신이 감동하더라 일즉 성신의 묵시를
 밧아 죽기 전에 반드시 주의 기리스토를 보리라 하더라 데성신의
 깨감동하여 성령에 들어가니 마즈 예수이 부모이린 아히를 디리고
 들어와 범을 좃차 힘코 짜하니 이여 아히를 안고 하느니 올 초수하여
 갈오되 주 이제 종을 노와 안연이가게 하시니 주의 말갓트 문너는
 으로 구완 보놀인 하미라 곳 주 만민의 악폐갓춘 비요 밧치 되여 쓰외
 방에 밧치 우고 아올나 주의 뵈성이 살일의 영화되리라 하니 예수이
 부모 말하년 비를 귀이네 기니 시몬이 초수하고 아히오 맘마 리암
 게 놀너 갈오되 이 아히서 이 살일 사람으로 하여금 만이 피하며 흥하게
 하고 또 변박을 밧년 자루가 되고 네 마음에도 한 반드시 칼이 들이 가듯
 사람의 심각으로 하여금 밧타 놀이라 하더라 또 아실의 지피여 바누을
 의 쌀이나 가이 스니 셤디요 나이를 근디라 체네로 덕인한디 칠년에 파
 거하여 나야 든디라 성년늘 세나디 안고 금식하며 빌기로서 밧밧

五



성기터니이셔여압페나아와주들 감샤하고또예루사렘에구완엇
기롤기디리턴사람덜노더부러이아희를말하더라예수의 부모주
의법을좃차써모든것을일우고즉시가니니로돌아가넋고을나살일
예닐으니그아희잘이며견장하고디헤가덕덕하니하느님의 은통
으로하더라미년유일절에그부모예루사렘에가더니예수 열둘에
나실셔여절기의규례를좃차예루사렘에올나가괴약을맞추고돌아
오린데아늘예수 오이러예루사렘에뉴하니그부모아디못하고반
드시는행하던샤의등에잇년가뺏하고하루길을행하다가친척파벗
사이여차자만너디못하고즉시예루사렘에돌아가찾다가사흘후에
성년개서만너니션싱가운데안저듯고도무루니듯년자다그디헤와
디갑하고괴이베기거늘부모보고이상이베겨그오막이닐너갈으
디아회사엇디이갓트놀우리게행하너너의부친이나파항계속이
샹하여너복차갓다하니디갑하여갈으되엇디나를차즈며맛강이너
아반이소게이슬출을아디못하였너니잇가하니부모그말을써앗디



못 하던 디라 예수 함께나 살 일에 돌아가 순종 하니 그 오 맘이 이 모든 일 노 씨 마음 에 간 덕 하 더 라 예수 더욱 더 행 하며 자리며 은 통 을 하 닌 님 과 및 사랑 의 게 보 하 더 라

누가 데 삼 장

티 비류 기 살 의 위 여 이 손 디 슈 오 년 에 모 토티 파 나 토 는 유 더 방 벽 이 되 고 헤 릿 손 가 니 니 분 봉 군 이 되 고 그 동 성 비 니 포 는 이 투 리 와 틀 꼬 니 티 도 사 분 봉 군 이 되 고 누 산 유 는 아 비 니 니 분 봉 군 이 되 고 아 나 와 기 아 바 제 사 당 되 여 슬 씨 여 사 가 라 의 아 들 요 안 닌 들 어 에 서 하 닌 님 의 명 을 받 고 이 여 요 단 기 곧 사 방 에 날 으 리 회 기 의 밤 팀 베 를 연 행 여 씨 죄 를 사 께 하니 션 디 이 사 야 의 글 에 말 하 비 갓 든 거 시 들 어 에 서 솔 이 불 너 같 으 되 주 의 길 을 예 비 하 며 그 쇼 로 를 받 으 게 하 라 모 든 끝 이 처 기 가 멎 기 우 고 산 파 두 언 이 낮 고 고 분 거 시 받 으 고 돌 각 말 이 가 려 디 될 디 니 무 룬 사 람 이 시 러 금 하 닌 님 의 구 완 을 보 리 라 하 더 니 요 안 닌 밤 팀 베 를 바 드 레 온 못 사 람 게 불 니 같 으 되 독 사 의 뉴 야 누 가 너 의 를 같 으 처 장 너 의 노



호물피호라터냐캣당이회기여합당제열음을밋치고스서로말호여
압라함으로우리소샹을삼디말나너너의게말호너니하느님이 능
히이돌노써압라함의자식이되게홀디라이제독구남우쉴이여이스
니무룬남기션한열음이밋치디안년거슨긱셔어볼에터딘다호니못
사랑이물이갈으되그러나우리맛당이무워슬호릿가디담호여갈으
되옷두벌이이스면논아웃업슨쟈를주고밥도또한그러호라호터라
세관이또와셔그밥팀베를밧고쟈호며물어갈으되션성남우리맛당
이무워슬호릿가갈으되딩한부세외여는취티말나호고또군사무리
갈으되우리맛당이두워슬호릿가강포티말며거죽고티말고어든비
냥식으로써족호다호라호터라뵈성이기되리볼품어마음에요안네
를혹키리스토 인가싱각호니요안너못사람게닐너갈으되나느볼
노써너의게밥팀베를주나오직나를이긱년쟈올디니너그신들키를
감이홀디못호리라데쟈차성신파볼노써너의를베줄디니그손에키
를잡고반드시그마당볼살이여곡석은거두워창에디리고게는세디



다 인년 물노써 살우리라 하고 또 열이 말노써 권하여 복음을 보성
 하되 다 못분봉왕 허릇이 동성의 체허로 다의게 한일 파행한 비모든
 으르써 첫 영을 요인니의게 보고 그 악을 더하여 요인니를 옥에 가두니
 러 못보성이 밤 틈네를 밧는데 예수 또한 밤 틈네를 밧으며 비년데 하
 늘 이르니고 성신이 형상으로 비들기 갓티 그우에 강림하고 또 하늘노
 솔이 이르닐으되 나는 너의 사랑하던 아들이요 갓기 허년 비라 하더라
 셔져 예수의 나이 삼십이 니 사람이 셔요 션의가들이라 하고 그아밤
 온혜니요 그아밤은 마티고 그아밤은 니워요 그아밤은 밀키요 그아밤
 온얀니요 그아밤은 요십이요 그아밤은 맛타디요 그아밤은 아뭇이요
 그아밤은 나움이요 그아밤은 예슬니요 그아밤은 낙키요 그아밤은 마
 맛이요 그아밤은 맛타디요 그아밤은 식미인이요 그아밤은 요척이요
 그아밤은 요다요 그아밤은 요아난이요 그아밤은 레싸요 그아밤은 쏘
 로바빌기요 그아밤은 사나뎀이요 그아밤은 네리요 그아밤은 밀키요
 그아밤은 앓디요 그아밤은 꼬삼이요 그아밤은 율마담이요 그아밤은



열기요 그아밤은예수요 그아밤은이네살이요 그아밤은오리암이요
그아밤은맛닷이요 그아밤은니위요 그아밤은수몬이요 그아밤은유
다요 그아밤은요섭이요 그아밤은남이요 그아밤은열야김이요 그아
밤은밀야요 그아밤은민나요 그아밤은맛타요 그아밤은나단이요 그
아밤은나빛이요 그아밤은옛시요 그아밤은오벳이요 그아밤은보웃
이요 그아밤은살몬이요 그아밤은낫손이요 그아밤은아미나답이요
그아밤은알니이요 그아밤은윗론이요 그아밤은바릿이요 그아밤은
유다요 그아밤은야곱이요 그아밤은사삭이요 그아밤은악라학이요
그아밤은바카요 그아밤은나코리요 그아밤은사룩이요 그아밤은라
가부요 그아밤은말치이요 그아밤은의비이요 그아밤은사나요 그아
밤은기난이요 그아밤은아발삭이요 그아밤은섬이요 그아밤은노아
요 그아밤은나뵈이요 그아밤은마두사나요 그아밤은의늑이요 그아
밤은사렛이요 그아밤은마디셀이요 그아밤은게난이요 그아밤은의
웃이요 그아밤은삿이요 그아밤은아담이요 그아밤은하느님이니라



예수 너희가 성신의 감동한 비되어 오단 리골 노릇이 돌아 가들이
 서 성신의 인도하심을 입어서 습관을 시연 올미 귀게 보낸 때 밥 먹지 못하
 여 기약이다 하미 비곰 품다 라 미 귀 불너 갈으 되네 만약 하느님의 아
 들이 연이 들을 하 명여 섹이 되게 하라 하니 예수 대답 하 여 갈으 되클
 에 날 니 시 되사 령이 섹 만으로 써 살미 안이라 하니 미 귀 더 리고 곱 품 테
 날으 러 순식 간에 던 하 각 국으로 써 보이며 갈으 되이 모 든 권 세 와 기 영
 화 로 써 너 를 주 리 라 이 거 손이 무 닌 게 맛 던 거 시 니 너 임 의 로 호 고 자 호
 년 비 들 줄 이 라 고 로 너 만 약 닌 게 질 하 면 다 반 드 시 네 게 붓 티 리 라 하니
 예수 대답 하 여 갈으 되 클 에 날 니 시 되 맛 당 이 주 너 의 하 느 님 게
 질 하 여 호 을 노 성 기 갖 다 하니 미 귀 쏘 더 리고 예 루 사 령 에 날으 러 던 영
 에 서 우 고 갈으 되 네 만 약 하 느 님 의 아 들 이 면 스 서 로 쉼 여 너 리 라 클
 게 날 니 시 되 주 반 드 시 사 자 를 명 하 여 너 를 보 호 하 여 손 으 로 써 붓 드
 러 네 만 이 손 에 던 니 우 늘 먼 하 리 라 호 었 다 하니 예수 대답 하 여 갈으

되글에보니시니쥬 너의하느님을 시염티말나^스히미귀시염을
 다하고잠간셔나니라예수 성신의능함무로써가니니에돌아가니
 과명성이사방에페더거늘모든회당에서갈이치니못사람이영화를
 돌니터라잘이란곳낙살일에닐으리사밧일에전디로회당에드러가
 셔서성령을오이려히미션디이사야의글을주니칙을페터기범풀보
 니써스되쥬의 성신이니개님함문복음을가난한사람에게면함물
 부탁하며요또나를보니여사루잡힌쟈를노이게하며죄경을보게하
 고씩게딘쟈를노와가게하여쥬의 희년을보하라^스엇거늘이여
 칙을덤어집사를주고안즈니회당못사람이눈을부어보년기라예수
 보니말오되이글이오를너의귀여응^스엿다하니못사람이간중함
 고귀임으로은통말함불귀이베기고또말오되이요셉의아들이안
 이냐하니예수 말오되너의속담을니게닐으라하니의연아스서로
 꾀티라우리너의가뵈공개셔헹한거술들이니또한본토에^스헹하라함
 고또말오되니실노너의게말하더니션디가귀본토에서^스집을밧은



자업니라 너실 노너의게 말하너이니 아셔에 하늘이 삼년 반을 닷
겨오온 짜이 크게 기뻐하 여이 살월에 수다한 파부가 이스되이니 아 불
이물 밧드릭 오직 시돈의 사람들 다한 파부게 만나 아가고 또 셤디이니 시
셔여이 살월에 수다한 뵈남 풍하년 자이스되 오직 수리아의 너만이 정
하물어 닷다 하니 회당 못 사람이 듯고 심이 노하 여 날어 성 밧게 쫓차 쓸
고 성 지 온 산 별 양에 날으리 닷디고 차하되 예수 바루 못 사람이 온데
로 hing 여가 터라 가니 너의가 뵈남에 날으러 사방 일에 같으치니 못사
람이 그 같으치 물이 샹이 네기 문그 말이 권세 이스미라 회당에 한 사람
이 더러운 샹귀의 신에 못튼 비되야 크게 불너 같으되나 살월 예수 는
우리 너의 로터 부러어 들어기로 너와셔 우리 를 멸하너 노너 너를 닛 줄
을 아년 거시 하느님의 성자라 하니 예수 최 망하 여 같으되 잠잠 하고
그 사람으게 나 오라 하니 샹귀 못 사람이 가온 데 터디고 이여나와 그 사람
을 샹티 안이 하니 못 사람이 괴괴이 베겨서 루 말하 여 같으되 이엇더 한
말이 기도 데 권세와 능하 무로써 샹귀 게 멩하 여 곳나 온다 하고 그 소문



이 사방에 나더라 이 여회당에 나와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당모
연병이 심이 둥한더라 사람이 위호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 갓가이
셔서 연병을 치망호미 연병이 물너가년더라 곳 날어나 일을 엿투더라
히 딜셔여 물운 사람이 병잇년자는 다 더리고나 아오니 예수 한나식
손을 그우에 디여 곳티니 귀신이 수다한 사람으로나 와 불너 갈으되 너
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니 최망호여 그 말을 허티 안이 호문테 키리
스톤 줄 알미라 발셔여 셔나 들어애 나가 미뭇 사람이 차자나 와 멧추워
그셔나 더안파테 호니 예수 불너 갈으되 너 맛당이 하느님의 나라
복음을 다른 고을에 전할 거시니 가 불이 물밭 들미이 불위호미라 호고
드디여 도를 가니 너 모든 회당에 전호더라

누가 데오장

마름뭇 사람이 응위호여 하느님의 도를 들을 적에 예수 켜니 사뤼
히 번에 셔서 두비히 번에 이스물 보니 고기 잡년 사람이 비를 셔나 그 물
을 싣년 데 한 비여 올우니 이 시몬 외히라 청호여 비를 움겨 못을 쫓셔나



하여안저비가운데로뭇사람을같이쳐말을다하고시몬게볼너같이
 되기를옴겨김꾼곳에닐으리그물턱잡우라하니시몬이같이되녕감
 우리종야들입부고어든빈업스나녕감의말노써그물을털이라하고
 척그물을티니고기결너거시심이만아그물아거의죄여덜나거늘이
 여다른빈여동무를볼너도우라하고미온즉고기를두비여치와거의징
 기게되니시몬피들이보고예수의물을옴알게업테여같이되유나
 를씨나소서나는죄인이라하고문데와맞함게잇년자잡은비고기로서
 그고이베기미라시몬의동무시비다의아들야곰파요안너또하글어
 하니예수시몬게볼너같이되두려워말나이제로써베장차사람을
 어들이라하니테덜이비를뭇트로서어일절이잇년거슬비리고쉴터
 라미즘한고을에서온몸에빅납풍헌년자예수를보고업테여구하
 여같이되유만약즐기면능이나를간정케하실이다하니이여손을펴
 밍저같이되너즐거하니너간정하라하미빅납풍이즉시낫년더라
 예수명하여같이되사람게고티말고다뭇가제사의게보이고또너간

+



정후물위하야모쇼의명한비갓디딜여씨간증을삼우라하니 예수
의소문이더욱페디고수다하사람이모야도록들으려하야병을고티
려하더라 예수물너가들어에셔빌터라하루는같이칠씩바리시
인파법같이치년자안저스니가니너모든촌파유디안예루사렘으로
온자라주의능하미야서병을곳디년테사람이상으로써바람중하년
자를머이고와들어가그압페두려하되사람이만아시력금들어갈슈
업서이여집우에올나집으로말무야상으로써가운데들이워 예
수의압페당하니 예수그미드물보고같이되이사람아네죄사하엿
다하니선비와바리시인의논하되이참남한말하년자가니냐 하
느님외여누이죄를샤하리오하니 예수그의논을알고같이되너
의엇디마음에의논하느냐혹죄를샤하년것파볼어행하년거세어느
거시쉽갓느냐다못너의로인자사에서죄사하년천세이스를알게하
리다하고이여바람중하년자게같이되너네게명하너니볼어나상을
가지고집에돌아가라하니테즉시뜻사람압페볼어나누엇던거슬가



지고 집으로 가며 영화를 하느님께 돌리니 못사람이 귀이이네겨 또
한 영화를 하느님께 돌리고 또 심이 두려워 같으되 우리 오늘이 상하
물 보았다 하더라 그 후에 예수 나가 세관 일을 은니 위라 년자 세 소
에 안즈를 보고 불러 갈으되 나를 좃추라 하니 이어 일절을 버리고 날 어
쫓더라 니 위예수를 위하여 더 연을 집에 비설하고 세관과 다른 사람
이 뜻게 참여한 자 심이 반오니 선비와 바리새인이 데자 게 웅얼 거 같
으되 너의 엇디 세관과 죄 연으로 더 보려 음식 하너야 하니 예수 불러
갈으되 성한 자는 의 연을 쓰디 안 죄 병하 년자야 쓰너니 너가 오 문물 온
사람을 불러 회기 하미 안이 요다 못 죄 인이라 못 사람이 같으되 요안네
외 데자는 자주 금식 하며 빌고 바리새인의 데자 도 또한 그리 하던 데 오 직
너의 데차는 음식 한다 하니 같으되 신 냉과 함께 이서 능히 경 하하 년자
로 하여 금식 깨 하라 오 직 날이와 신 냉을 더려 간 후에 야 금식 하너니
라 하고 비사로 쓰갈으되 시 옷 슬한 직 박 직 여 현 옷 갑 년자 업너니 클어
면 시 거 슬 직 고 겸이 기 운 비 시 것 파 헌 거 시 합디 못 하고 또 시 슬 노 써 현



피니여네오미업너니클어면시술이그피더를더터술이시키고피더도
한몫쓸디니오직시술을시키고피더여넛너니라또한묵운술을마시고시
술성각호년자업스문묵운거시더욱도타닐은미라호터라

누가데눅쟝

마즘한빈사밧일에예수 밀밭들디너넢데데자일이삭을싸손으로
써비바여먹으니바리시인이닐너갈오되너의엇디사밧일에법안인
일을호너냐예수 더답호여갈오되너의다밧과죗년자비감을써여
한빈세지오이다곳호였느냐하느님의 甸에들이가던실한삭을취
호여먹고또그죗년자르주워시니다곳제사외여는떡다곳호년법이
라호고또갈오되인자도사밧일의주인이라호너라또한빈사밧일에
회당에들이가갈오치넢데기귀한사람이이삭을운손이팔은디라선
비와바리시인이그사밧일에곳터나젓보문송사호기를어들이호미
니예수 마음을알고손달은쟈게닐너갈오되닐이가운레사라호너
이여닐어셔거늘예수 못사람게갈오되너의게곳너니사밧일에



선을 힘히 하며 악을 힘히 함과 성명을 구원하며 성명을 죽이던 거세어 느거
시 합당히 갓 너 나 하고 이 여 둘 너 보고 그 사람 게 벌 너 같으 되 너 손을 펴
라 하 미 데 퍼 티 니 손 이 족 시 나 아 다 른 손 갓 트 니 못 사 람 이 심 이 노 하 여
함 게 의 노 하 여 었 다 써 예 수 를 체 티 하 리 요 하 터 라 써 예 수 산 에
올 나 가 빌 고 자 하 여 좋 아 례 하 느 님 게 빌 고 밭 씨 여 모든 데 자 를 불 너
다 열 누 를 씨 여 사 자 라 칭 하 니 다 못 시 모 또 일 음 을 피 들 이 라 년 자 와 그
동 성 인 드 라 피 아 곱 파 요 인 님 파 비 님 파 밭 도 노 미 와 마 티 와 나 마 와 알
비 의 아 들 아 곱 파 예 라 칭 하 년 시 모 파 야 곱 와 동 성 유 다 와 이 속 로 유 다
니 곳 슈 를 팔 자 터 라 이 여 함 게 산 에 너 려 가 평 디 여 서 니 모 든 데 자 와
허 다 한 못 사 람 이 유 디 사 방 파 예 루 사 려 파 밋 투 로 와 시 돈 의 히 변 으 로
붓 터 와 도 를 들 으 며 그 병 을 곳 티 려 하 고 또 더 리 운 귀 신 으 게 말 년 하 던
자 다 나 으 불 어 드 니 못 사 람 이 예 수 를 믿 지 고 자 하 문 능 하 미 데 으 게
로 나 아 와 써 모 든 사 람 곳 티 물 인 하 미 라 예 수 눈 을 들 어 데 자 를 보 와
같 으 되 간 난 한 자 복 이 이 스 문 하 느 님 의 나 라 이 너 의 게 붓 트 미 요 이



제 주린 자 복이 이스문 너의 장차 비부리요 이제 우년 자 복이 이스문
너 장차 우수미요 인자를 위하야 사람이 너의를 미워하며 멀리 하며 욕
하고 너의 일음으로 쓰약 하물 삼아 비린즉 너의가 복이 이슬디니 땅 일
에 즐거워 쉬닐거리 문하늘에서 너의 상주미 크미니 그 조상이 셤디의
게 힘한 거시 또한 이갓트니라 오직 너의 부한 자 직화 이스문 너의 일즉
위로 밧으며 요 너의 이제 비부런 자 직화 이스문 너의 장차 주리미요 너
의 이제 웃년 자 직화 이스문 너의 장차 슬퍼하며 울미요 못 사람이 길이
년 자 직화 이스문 그 조상이 거 죽 셤디 게 힘하디 또한 이갓트미라 너
의 듯년 자 오게 날으 너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의를 미워하며 너의
션이 보며 너의를 욕하며 너의를 죽원하며 너의를 멸시하며 너의를 위하야
빌고 너의 셤디년 자를 다른 셤디 주며 너의 밧견 옷가져가 년 자를 속
옷 세지 금디 말며 너의 게 구하며 너의 물건을 가져가 년 자를 다
시 달디다 말며 사람이 너의 게 힘하야 너의를 슬 또한 이갓디 사랑으
게 힘하야 만약 너의를 사랑하며 너의를 사랑하며 무순은 통이 이스라 죄



인이또한자괴사랑하년자를사랑하너니라관약너의를선디하년자
를선디하면무순은통이이스라엘이또한이갓티형하너니라너의
안약빌니고그갑기를바리면무순은통이이스라엘이또한죄인을
빌니고그갑푸물의수이하너니라오직너의는원슈를사랑하며선디
하고빌니고갑푸물바리디안은즉너의상주디그문장차지극기롭
이의아들이될거시대선을비반하며약하자를선디하미라고로너의
어엿비베기기를턴부의어엿비베김갓티하라사람을시비하디안은
즉시비를보디안괴사랑을죄주디안은즉죄주물보디안괴사랑을샤
한죽너의가샤하물보고사랑을준즉너의가주물보고큰말노써늘우
고흔드리밧게넘새게줄디너의가무순말노써사랑을준즉사람이
또그말노써너의를주너니라하고또비사를닐디갈오되죄경이능히
죄경을인도하너나그러면둘이다옹터리에싸디다안으라테자가그
스승을넘디못하되오직전비한자야그스승파갓토니라엇디동성의
눈에가시이스물보고자괴의눈에못당이스물싱각디못하너노또엇



더 시러금 동성게 날으되 동성아나를 용납하여 배눈에 가시를 비리라
 하고 자기의 눈에 못당을 생각디 못하느냐 거 죽션 올하년 자야 먼저 배
 눈에 못당을 비리고 밭기 보이거든 동성의 눈에 가시를 비리라 요운 남
 우에 못된 얼음이 밋치더 안지 못된 남우에 요운 얼음이 밋치더 안으문
 무른 남글 얼음으로 쓰알미니 형극으로 부터 무화극을 거두디 못하고
 능징이로 부터 포도를 사디 못하느냐 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온 선으
 로 말부아 선을 밭하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서 온 악으로 말부야 악을 밭
 하문 마음에서 온 자를 입어 말하미와 너의 엇디 나를 주라 칭하고 너의
 말하년 너를 인티 안디느냐 무른 너게 나와 나 말을 듯고 인하년 자를 너
 너의 게그사 략이 부잇갓트 물보일이라 사람이 집지을갓트니 과거를
 김피하고 더 올반석우에 두면 탕슈 날서여 불이그 집을 밀너도 능히 동
 티 못하문터이 반석우에 인하디요 오직 듯고 인티 안닌 자는 사람이터
 업서 집을 홀우에서 움보트니 홀이 한 빈 밀틴 죽이여 할어디고 그 물어
 더 미고니라



누가 데칠장

예수 비성을 갈으처 모든 말을 다 하고 죽시가 빌남에 들어가 년테한
파총의 사랑하년송이 병하여 거의 죽어가 년디라 예수를 풍문하교
유니당노닐을 보니 여와 그종곳티물구하니 당노예수 으게나아와
간절이 구하여 갈으되 이사람으게 이일노써 하미 합당한 거시테우
리 비성을 사랑하며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세워 사하더니 예수 함께
가집에서 머디안아 파총이 벗슬보니 여나아와 갈으되 주 임부디말
으소서 주 니집에 남하시면 닉감당티 못하교 또한 자괴로쥬 으게
나아가도 못홀디니 다못한말삼만하시면 닉의 종이 반드시나올거
시나는 사랑의 권세여 벗고 또한 군사는 닉 권세여 벗터시니 이 사람으
게 말하여 가라 한즉 가고 테사람으게 말하여 오라 한즉 오고 닉종으게
말하여 이를 하라 한즉 이를 하하니 이다하니 예수 듯고 괴특이
네겨 모든 좃년 자를 돌아보와 갈으되 너으게 말하너니 이 살일가운
데 이갓티 크게 밋년 거슬보디 못하엿다하터라 보너 엿던 사람덜이 돌



아가보니 병하던 종이 나 온디라 몇날 후에 예수 한 고을에 놀으니 일
음은 나인이라 데자와 열어 사람으로 더부러 함께 행고 여성문에 갓가
우니 죽은 자를 머이고 나아 온던 데 그 오맘은 파부로 다 못독자라 데 파
고을 뵈성이 함께 흥년 자심이 맘은 디라 주 보고 어엿비 베풀어 고
우디 말나 흥고 이어 갓가 이가 그 판곽을 민지 니 머인 자 몇추년 디라 예
수 같이 되쇼자 야니 네게 명하니 보어나라 흥고 죽은 자 즉시 보어나
저도 말하니 예수 아 들노써 그 오맘을 주 거늘 못사람이 두려워 영화
를 하느니라 돌디 같이 되곤 션디 우리가 온데 보엿다 흥고 또 하느님
이 그 박성들을 아보왓다 하니 이 소문이 온 유디와 사방에 허여디
더라 온인의 데 자 이 일노써 요안니에게 흥고 하니 요안니 이어 두테 자
를 불러 보니 여주를 보고 같이 되올자가 괴디니 잇가 모루미 다른 사
람을 기디리 잇가 흥라 하니 두사람이 예수 으게나 아가 같이 되밧림
네을 더루년 요안니가 우리를 보니 여주 으게나 아와 말하되 올자가
주 니 잇가 모루미 다른 사랑이 기디리 잇가 흥라 하니 셔여 예수 판이 병



하년자와증환잇년자와잇악귀붓튼자를곳티고또쇠경을보게하되
 라이여너담하여값으되너의가본비와들은비로써요인너에게고하
 라쇠경을보게하며질누익이를헝게하며빅납풍하년자를정재하며
 귀역당이들듯게하며죽은자를닐게하며간난한자의게복음을턴하
 고들은나로써막년거슬삼디안년자는복이라하니요인너외보닌사
 람이간디라예수 요안너를들어못사람으게닐너같은되너의들어
 예나아가무어슬보려하엿느냐같이바람에동하년거슬보려하엿느냐
 그러한디외나아가무어슬보려하엿느냐사람이아름다운의복입
 운거슬보려하엿느냐화례한의복파호사하년자는왕궁에잇디니라
 그런즉너의나아가무어슬보려하엿느냐선디느냐너에게말하되니
 이는선더보담크니라하니이는곳글에닐은비니너의사자를디의압
 께모너여암서길물예비한다하미라너에게말하되니부인이나온
 비에는밥팀네를법푸년요안너보담크니입스되그려나하느님의
 나라에지극기저근자가오이레데보담크니라하니못빅성과세판이



열쭉밤침대를요안너오개맞은디라듯고하느님의 올우물칭하되
 오직바리시인파흐법스승이하느님이 저의생각하년사를맞디안
 온디라주 같으되이세상사람을너엇디씨비기리요테파연무엇갓
 르나아희명이본이에안좀갓트니서로볼디같으되우리대를부되너
 의써닐디안이하고슬픈노리를하되너의우디안이하니밤침대를법
 푸년요안너는와셔씩도먹디안죄술도마시디안으되그귀신을꿈엇
 다말하고인자는와셔임의로음식하되너의또날으기를데탐식하고
 술을즐니년세관파죄인회벗이라하나그러나디해는그아들노씨을
 우물칭하니니라한바리시사람이예수를 청하여밤을함게하려하
 니바리시인의집에 들어가안즈민성능에한베인은죄인이라그집에
 안즌줄을알고옥합에몰약을가지고예수의 뒤에서서그발을씻하
 고올어눈볼노씨그발을적시키고머리살노문디며또입을그발에접하
 고몰약으로써받으니예수 청한바리시인이이를보고마음에갈오
 되이사람이션디면반드시민지년자가누며또엇디한베인이며죄인



인 줄 알니라 하니 예수 갈이 되시도 아니라 계니 을 관이 잇다 할 줄
 의 되 선 성은 정컨 단 말 삼 하 소 서 하 니 갈이 노 빛 못 면 사 람이 두 가 지 사
 가 이 스 니 한 나 은 유 수 인 방 을 지 고 한 나 은 닷 방 을 거 스 되 갈 을 스 가 업
 스 미 데 다 면 하 이 주 위 시 니 그 런 즉 늘 이 전 주 사 람 하 기 를 부 가 심 하 기
 니 나 려 탈 하 여 이 세 무 이 된 갈 하 여 갈이 되 니 뜻 에 는 안 이 면 주 자 니 이
 다 갈 이 되 비 의 소 권 이 올 라 고 이 여 동 이 위 비 인 을 향 하 고 시 문 게 는
 너 갈 이 되 니 이 비 일 을 보 라 니 너 의 집 에 들 어 와 서 도 너 는 물 노 썬 너 발
 을 씻 치 주 며 안 이 되 오 직 데 는 눈 물 노 썬 너 발 을 씻 고 멀 이 슬 노 문 되 며
 너 는 인 이 로 나 들 접 어 안 이 되 오 직 데 는 나 드 리 오 텨 서 르 붓 더 입 으 로
 너 발 에 접 하 기 마 라 안 이 되 너 는 길 음 으 로 썬 너 멀 이 에 발 이 더 안 이 되
 오 직 데 는 눈 약 으 로 썬 너 발 에 바 른 다 고 로 비 게 날 으 너 니 데 외 만 온 죄
 사 하 문 그 사 랑 하 미 만 이 미 요 오 직 사 하 미 적 은 자 는 그 사 랑 하 미 적 으
 머 라 하 고 이 여 네 인 게 볼 니 갈 이 되 비 외 모 든 죄 사 하 였 다 하니 함 게 안
 존 자 사 사 라 이 볼 니 갈 이 되 이 었 더 한 사 람 이 또 죄 를 사 하 너 나 하 되 에

46

수 배인게 같오되 네의 밋으미 너를 구원하되니 가이편안이 돌아가
라 하더라

두가테 팔장

후에 예수 둘우 성촌에 향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보하되 복음을 전
하년 네이 두테 자함게 하교 또 한 두워 부인이 이스니 일죽악귀의 못더
연약한 비로 곳리 물이 든 자 곳과 라니 막너 벤이다 칭하년 비니 볼굽귀
신이 그 몸으로 나아 오교 또 헤롯의 집에 징상쿠사의 체요 안나요 또 쇠
산나 피다 본부인 열이 이잇년 비로 썩엿두년 자디라 열어 사 람이 모이
고 또 모든 교을 노부터 오년 자 이스니 예수 비사로 말하여 같은 회동
사 하년 자나아가 종지를 하되 다 하되 년 데 길 첫테 열어 던 거 손사 람이
발부며 공농에 사이다 먹고 들에 열어 던 거 손어 음이나 자 곳 말은 문저
즈디 업스미 요형극에 열어 던 거 손가 시가 갖타 자 리 열같이 우고 노운
사 에 열이 던 거 손나서 결실이 되 곱이라 하며 말놀막고 불너 같오되
귀이스면 들오라 하니 테 자 무려 같오되 이 비사가 엿다 니 잇가 같오되



하느님의 나라 비결은 너의 주위 알게 하고 오직 다른 사람 인즉 비
 사를 벗푸리고 보고 볼지 못하녀 듯고 씨앗이 되듯 하니 이 비사가 이 거
 시라 좋지는 하느님의 오니 길여 개월이던 거슨 사람이 도를 들으리
 락 귀곳 날으리 그 마음으로 부터 아사가 문밧어 구완어 돌가 하고 돌에
 셤이던 손사람이 도를 들듯 고 줄거 원방 아시나 다 못생이 가 업서 잠간 밧
 다가 시연을 볼새 여 노흔 비반하고 극에 셤이던 거슨 사람이 도를 들
 고가 난세상에 모든 생각과 죄물과 연락이 같이 위결실티 못하고 도
 운새 셤이던 거슨 사람이 올것어 딴 마음으로써 도를 들이 락 기고 또
 참으부르 써결실하느니라 사랑이 불을 해고 그릇으로써 덩투며 흑상
 아레 두니 인 쇠오 직화디 우에 노우 문들어 언년자로 하여금 그 빛출보
 개 하디 감춘거시 닷타나 디인으 미업고 은밀한거시 나 터아디 못하
 더 업스라 고로 그듯 년비를 삼가 하라 잇년자는 더 주고 업년자는 곳
 그와 각 것년 비세지 아사가 미니라 하터 라 예수의 오맘과 동성이 나
 아 되시니 금갓가 이 못하문 사람 만으 물인 하미 더라 흑이 고 하여 같으

14



되주어 모친과동성이 밧게서 주를 보고자 하니 다 하니 더 밧
 여 끈이 너의 오맘과 동성은 이 하느님의 도를 듯고 힘히 년자라 하
 터 다 하 루는 예수 테 자로 더 부리 비여 올라 날 니 같으 되 우리 호슈를
 건네 사 하 고 이 여 힘 현 하니 힘 힘 세 여 예수 자 년 테 마 즘 광 풍 이 호 슈
 에 너 리 비 사 는 네 물 이 거 의 차 위 터 러 우 니 데 자 나 아 가 씨 와 같 으 되 우
 리 죽 어 가 보 이 다 하니 예수 날 어 나 바 람 파 물 열 을 썩 지 스 니 즉 시 밧
 고 안 정 하 년 더 라 이 여 같 으 되 너 의 밧 으 미 어 디 잇 니 노 하니 못 사 람 이
 두 려 워 귀 귀 이 배 거 서 로 같 으 되 이 잇 더 한 사 람 이 기 로 바 람 파 물 을 명
 하 여 또 한 순 종 한 다 하니 더 라 비 힘 하 여 리 라 신 사 에 날 으 니 가 니 니 마 주
 권 이 라 예 수 못 테 니 리 니 성 동 에 한 사 람 이 만 닌 니 오 러 귀 신 이 밧 터
 웃 술 입 디 안 꼬 집 에 도 거 티 안 꼬 무 덤 에 거 하니 자 라 예 수 를 보 고 불
 요 적 이 고 그 압 껍 언 터 여 큰 소 리 로 불 너 같 으 되 지 극 기 높 품 하 느 남 의
 아 들 예 수 너 너 의 로 더 부 리 어 드 리 너 노 구 하니 나 들 고 상 께 날
 나 호 근 예 수 일 즉 사 귀 를 명 하 여 그 사 람 으 게 나 아 오 미 라 이 사 람 이



더러운 귀신에게 억제함이 없어 번에 비록 쇠사슬과 고당으로써 쓰우
 고 덕키도 귀게 갓춘 것슬 쓴 귀신에게 들어 에 싹추미 된다 라 예수
 무리 감으되 네 무순일은 이냐 하니 같으되 군이라 하니 문귀신 든 자 만으
 미 리 예수 으께 구하엿 명하 여 디옥에 들어가 디안 깨하라 하니 거
 괴 도 아 자 무리 산에서 먹거늘 들어가 물 구하 미 허 하니 모든 귀신이 이
 여 그 사람으께 나 아와 도 야 지 깨 들어가 니 그 무리 산 견 들 미 기 로 말 아
 놀 여 호 슈에 들어가 썩 디니 목 인 이 하니 비를 보 고 즉 시 말 아 나 성 시에
 고 하니 못 사람 이 나 아와 하니 비를 보 려 하 여 예수 으께 나 아 가 귀 신
 나 아 온 비 사람 을 만 니 니 웃 슬 입 고 텃 연 이 예 수 의 발 아 래 안 것 거늘
 못 사 람 이 무 서 워 하니 본 자 귀 신 붓튼 자 어 듯 깨 구 완 어 드 무 로 쓰 고 하
 니 리 리 신 사 방 에 못 사 람 이 다 그 시 나 기 를 구 하 문 무 셔 우 미 심 하 물 인
 하 디 라 예수 비 여 올 나 돌아 가 년 데 귀 신 나 아 온 자 함 게 하니 구 구 하
 니 예수 보 니 여 같 으 되 니 집 에 돌아 가 하 느 님 이 네 게 힘 한 비 로 쓰
 사 람 으 게 고 하 라 하니 테 이 여 가 오 온 고 올 에 서 예수 자 기 를 위 하 여



힘한 비를 페티더라 예수 돌아올새 여섯 사람이 영접하 문기 디리물
인하더라 한 사람의 이름은 이로니이 회당 처태한 자라와셔 예수의
발아래 엎드여 그 집에 날으물 구하 문외살이나 이 열들인 데 거의 죽어
가물인 하미라 예수 힘쓸새 여섯 사람이 용위하 년 때 한 네인이 더하
증열 두히 여의 연으로 위하 여 그 산업이 모진 하 고 능히 곳 티미 업 손자
라 예수 의 뒤여 나가 그 옷 단을 밧지니 더하 중이 곳 머 존 디라 예수
갈으되 누가 나를 밧지니 노하 니다 업 더어 다하 년 데 피 들 과 밧 함 게
하 년 사람이 갈으되 녁 감 못 사람이 비 비 하 여 주 를 미 너 이 다 하 니 예
수 갈으되 나를 밧지 년 자 이 스 니 니 능 하 미 나 로 말 무야 나 아 오 물 세
닷 노라 하 니 네 인 이 자 기 로 능 히 숨 기 디 못 흐 줄 을 알 고 셤 며 날 으려 업
더 여 못 비 성 의 압 풀 당 하 여 밧 진 언 고 와 다 못 죽 시 나 은 스 스 로 쓰 고 하
니 날 너 갈으되 네 인 아 네 밧 으 미 디 를 구 완 하 니 안 연 이 돌아 가 라 하 터
라 말 흘 세 여 회 강 처 태 한 자 의 집 으 로 오 년 자 갈으되 남 지 살 이 죽 어 스
니 년 성 을 입 부 게 말 나 예수 듯 고 날 너 갈으되 무 셔 워 말 고 오 직 밧 은



죽네의 딸이 구원을 이드리라 하고 집에 들어갈새 여파들이 관하여
인니 파밧베이의 부모 외에는 다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못사
람이 울고 통곡하던 때 예수 같이 되올디 말나 네이 죽디 안꼬 잔다
하니 못사람이 비우수문 그 죽으물 알미라 예수 네이의 손을 잡고 불
너 같이 되네이 야 날어나라 하니 그 병환이 회복하여 즉시 일어나 가는
명하여 밤을 주라 하니 그 부모가 이이네기 난디라 예수 경게 하여 힘
한 비로써 사람이게 고티 말나 하티라

누가 데 구장

예수 열두테 자를 불러 능함과 권세를 주워 모든 귀신을 억제하여 병
을 곳디게 하고 보니 여하느님의 나라를 보하여 연약한 물 낮게 하며
닐너 곧으되 길에 쓰년 것 파혹디 광이 파혹자 루파혹 낭식 파혹은 파혹
두 벌 옷슬 가지디 말고 너의 들어가 년비 집에 거하다가 또한 거기서
나라 너의 를 디 점디 안년 차 잇거든 그 고을을 떠날새 여발에 문주를 털
어 간증을 삼우라 하니 메자이어나아가 두루 각 촌에 회하여 복음을 전

호며 병을 곳티더라 분봉군해롯이 이 항한 비모든 일을 뜻고 심이 두데
호문혹말이 요안니가 죽우 무로다 시닐엇다 호며 혹이니 야가 낫타 낫
다 호며 혹넷션다 한나이다 시닐엇다 호물인호미라 해롯이 같으되요
안니를니이 무버엿는데이 제또이런말을들으니이 엿티한 사람이요
호고보고자 호더라 보닌자 돌아가 항한 비로써 예수 오게호니이
여더리고사사라이 한성에가니 일은은비시다라 못사람이 알고조거
늘더점호여하느님의 나라으로써말호고 무문의연 쓸자를 곳티더
라 날이겨물기여 열두네자나아가 같으되 청컨던 못사람으로 하여금
두루촌니에가뉴숙호고 밥을엇게호소서 우리어기는 들어이니이다
하니 같으되 너의 밥을공급하라 같으되 우리안약이 못사람을위호여
가 먹을거슬사디안으면가우씩다숫기고기 두리니이다 호문그사람
이더강오천이라 예수 데자게 같으되 못사람으로호여금세를지여
안지올네미세여쉬인식호라 하니 데자게갓디 호호여다 안지우리예
수 십다숫기와고기 두리를취호여하늘을올이려 축슈호고세여테



자를 주워하여 금뭇사람으게 노우니 다 빈부우게 역고 그 밤은 부수려
 기를 거두워 열두광지에 치우니라 마침까지 서비넌테 데 자함게 하니
 예수 무리갈으뭇사람이나를 뒤라하더냐 디답하여 갈으되 밤틈
 배를 헹구던 요안니라하며 혹이 나아라하미 혹 벗션 디에 한나이다 시
 님 잇다 하더이다 갈으되 오직 비의는 나를 뒤라하더냐 피들이 디답하
 여 길으도 하느님의 키리스토 니이다 하니 예수 경계하여 일노써 사
 람으게 고티 말나하고 또 갈으되 인자 반드시만 아히르 밤아당 노와 모
 든 제사당 파선 비의 비린 비되야 죽이물 보앗다가 사흘만에 밤갓다하
 고 또 뭇사람으게 불러갈으되 만일 나를 찾코자하면 마당이 몸을 돌아
 보디안꼬 날마당 그 습식 틀을 지고 나를 찾라 그 성명을 구완꼬자하
 년자는 상차 할꼬 오직 나를 위하여 그 성명을 힐은 자는 상차 구완하미
 니라 만약 사람이 틈하을꼬 스스로 힐으여 망하련 무순니 의하미 이
 스리요 우룬나 파미니의 도로써 붓구려 하년자는 인자가 자귀와 띠
 부와 밧던사의 영화로써 강님 흘세여 쓰한이 사람으로써 붓구려 워하



리라 너실 노너게 말하 너니 여긔 셴자 멧치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
라를 보리라 하더라 이 말한 후 칠 팔 일 만에 예수 피들 파 요안니 파 야
괘을 더리고 산에 올라가 빌티 하 너니 빌세 여 용모가 변하 고 웃시 곁
빅하 여 빛 출 눈 꼬 두 사람이 더부리 말하 니 곳 모쇼와 이니 여 라 영 요로
써 낫타 나 테 장차 예루사 려에서 죽 음 일 우물의 논 하 년 테 피 들 파 밋 함
게 잇 년 자 곤 하 여 졸다가 서 여 그 영화 파 또 두 사람이 함께 서 스물 보 고
두 사람이 세 날 세 여 피 들이 예수 게 빌 너 같 으 되 주 우리 여 기 이 스
미 요우 니 나 를 용 남 하 여 막 세 간 을 지 올 테 한 나 온 주 를 위 하 고 한 나
은 모 쇼 를 위 하 고 한 나 은 이 니 아 를 위 하 갓 다 하 되 그리 나 스 서 로 빌 으
년 비 를 아 디 못 하 터 라 말 하 세 여 굴 움 이 이 서 더 퍼 몸 이 굴 움 에 들 어 가
년 테 무 서 위 하 니 굴 움 속 으 로 못 터 솔 이 이 서 같 으 되 이 는 너 의 사 랑 하
년 아 들 이 니 너 의 들 으 라 하 터 라 솔 이 발 하 미 예수 참 차 이 스 볼 보 고
테 자 당 서 여 잠 잠 하 고 본 비 로 써 사 랑 으 게 되 안 터 라 이 톨 볼 산 에 너
리 밋 열 어 사 랑 이 영 접 하 년 테 가 요 안 니 한 사 랑 이 볼 너 같 으 되 셴 성 남 구



하느니 너의 아들들을 돌아보소서 이는 외아들인데 귀신이 벗터 감작이
 볼우적이 고쳐 말하며 더 품을 흘니게 하여 신이 상케 하고서 나기실 노
 이럽기로 너 주의 데 자게 쓰기를 구하되 능히 못하더이다 하니 예수
 같이 되밧으미 업고 피억한 세상아 너의 이를 함께 하며 너의 이를 참년
 더가 열미 나내 아들들을 더리고 여괴오라 하더니 올세여 귀신이 석부려
 터고 더 말하게 하거늘 예수 더러운 귀신을 치망하여 아희를 못터그
 이 비끼들니 니 못사람이 하느님의 크물늘 너더라 못사람이 예수
 칭한 비를 괴괴이네 곧 세여 예수 데 자게 볼너 같이 말이 너의 귀
 여간 더 하라 인자 장차 사람의 손에 부딪보물 인함이 라 데 자이 말을 아
 더 못하든 온 믿하여 세 닷더 못하나 그 러나 감이 못더 못하더라 데 자덜
 어서로 귀가 크노의 논하니 예수 그마 음에 의논하물 보고 한나 어린
 아희를 취하여 젖테 두고 같이 되 무론 너의 일음을 취하여 이어린 아희
 를 더 접하년 자는 나를 더 접하미 요 소나 록 더 접하년 자는 나 보닌 이를
 더 접하미 너의 듯지극기 저근자가 크니라 요안니 볼너 같이 되션 성



남우리한사람이주의 일음으로써귀신쉴추물보고금호문그우리
를죽디안으미니이다예수 갈으되금티말나우리를티디안년자는
도우미라호터라아즘예수 를거들날이거의볼으미에루사람에뎡
녕가려호고사람을암셔보니니이여산마니아한마음에들어가위호
여에비홀나넌네가올사람이디점디안으문그형호미에루사람향호
물인호미라테자아꿈파요안니가이를보고갈으호쥬 우리로불을
볼티하늘노너러벧적이니아의헌한비갓테를멸끼자호너잇가에
수 돌아보고최망호고이여다른마올노가터라길에형홀셔여혹이
닐티갈으되쥬 무론어디를가시던디니죽갓너이다호니예수 갈
으되여우도궁기잇고공동에사이드깃시이스되오직인자는말이들
곳이업다호고또한사람으게닐티갈으되나를죽초라호니갈으되나
를농남호여민져가아밤의장사호게호소셔호니갈으되죽운자죽맛
터그숙운자죽장사호고너는가하느님의 나라올면호라호터라또
한사람이갈으되쥬 니쥬를 죽출디니다듯나를농남호여민져집



사람을 하되게 하소서 예수 같으되 무릇 손에 붓심을 잡고 뒤를 돌아
보던 자는 하느님의 나라에 부당하니라 하더라

누가 데 습창

그 후에 주 또 칠 습인을 세워 들식 보던 여자가 가고 자 하던 빈모든 고
올 파 모든 사에 날으게 하녀 날 같으되 거 돌 거 손 만으되 삭군 이 격으
니 맛 당이 농 주 계 구 하 여 삭군 을 보 니 여 그 거 두 년 데 나 아 가 게 하 리 니
가 라 닌 너 의 를 보 니 너 거 시 양 의 식 기 일 이 물 이 에 들 어 가 년 것 갓 트 니
전 더 파 혹 자 루 파 혹 신 을 가 지 디 말 며 곧 예 서 사 람 으 게 문 안 티 말 고 들
어 가 년 빈 집 에 민 저 말 하 되 이 집 이 평 안 하 라 하 여 라 만 약 거 기 평 안 하
년 사 람 이 이 스 면 너 의 평 안 이 데 게 유 하 고 안 인 즉 너 의 게 돌 아 갈 디 니
그 집 에 거 하 여 옛 투 년 빈 를 먹 으 며 마 시 고 삭군 이 그 갑 슬 어 드 미 합 당
하 니 이 집 으 로 데 집 이 온 디 말 고 들 어 가 년 빈 고 을 예 사 람 이 너 의 를 뒤
접 한 즉 그 너 의 압 폐 버 쏘 빈 를 먹 고 그 가 온 데 병 하 년 자 잇 거 든 곳 티 고
또 못 사 람 으 게 고 하 여 같 으 되 하 느 님 의 나 라 이 너 의 게 갓 가 왔 다 하



고 들어가 년 비 고 을 에 사 람 이 너 의 를 더 점 하 디 안 은 즉 그 거 리 에 나 아
와 말 하 되 우 리 게 올 운 논 주 새 지 셔 러 너 의 를 주 리 라 하 고 다 못 하 느 님
의 나 라 이 너 의 게 갓 가 운 줄 을 알 나 하 여 라 너 의 게 말 하 너 니 그 날
에 소 도 모 의 형 벌 이 이 고 을 보 담 권 면 즉 하 리 라 지 화 라 너 의 죄 라 신 아
지 화 라 너 의 비 식 디 야 너 의 가 운 데 서 형 하 비 능 한 일 을 만 약 투 로 와 세
돈 에 서 형 하 여 시 면 테 일 즉 이 비 과 죄 를 쓰 고 안 저 회 기 하 여 시 리 라 다
못 판 죄 를 당 하 면 투 로 와 시 돈 의 형 벌 이 너 의 보 담 권 면 즉 하 리 라 가 벌
남 아 니 의 하 늘 갓 티 놓 갓 티 나 장 차 디 부 에 설 어 티 리 라 너 의 를 듯 년 자
는 나 들 들 으 미 요 너 의 를 숨 이 여 하 년 자 는 나 를 숨 이 여 하 디 오 나 를 숨
이 여 하 년 자 는 나 보 님 이 를 숨 이 여 하 미 라 하 니 칠 습 인 이 즐 거 워 돌 아
와 같 으 되 주 주의 일 음 으 로 써 귀 신 새 지 우 리 게 항 복 한 다 하 니 예
수 같 으 되 님 사 람 이 번 기 갓 티 하 늘 노 북 티 설 어 디 돌 보 와 시 니 너 의
를 비 임 과 전 같 을 발 부 며 원 슈 의 능 하 늘 의 제 하 년 천 세 를 주 워 반 드 시
히 가 업 슬 이 라 그 러 나 귀 신 이 너 의 게 항 복 하 무 로 즐 거 워 말 고 다 못 너



의 일을 음을 하늘에 기록함으로 즐거워하라 함이 당시에 예수 성신으로
 쓰여 희락함여 같이 되어 아반이 텅디의 주 너 아반이를 칭찬함여 너
 이 열을 슬거운 자와 통말한 자에게는 감추고 적자에게 나타내었니 선
 한 데라 아반이 이것면 아반이 의 깃버함여 너이니 다 만물을 아반이
 가 나를 주워시니 아반이 외여는 아들들을 아반이 업고 아들 파 밋 아들이
 나타내어 함여 너 자 외여는 아 밤을 아 년 자 업 너 이 다 함고 이 연 데 자를 돌
 아 보고 사사라 이 같이 되 너의 보년 비를 보니 그 눈이 복이라 너의 게 말
 함여 너 닷적 선 디 파 군 왕이 만이 너의 보년 비를 보고 자 함되 시 리 금 보
 더 못 함고 너의 듯년 비를 듯고 자 함되 시 리 금 듯 더 못 함여 너 니 라 함터
 라 법 같이 치년 스승이 불러 시 영 함여 같이 되 선 성신 너 엿다 함야 영 성
 올 이 드 리 요 함여 수 같이 되 법에 기록 함 비 엿다 함여 너의 오인 비
 엿다 함보 함여 니 디 함 함여 같이 되 마음 다 함여 목숨을 다 함여 힘을 다
 함여 뜻을 다 함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 함고 또한 근체 사랑 사랑
 함기를 제 몸 갖다 함여 너의 다 함여 니 같이 되 너의 디 함 함년 비가 올

11411

타이를 밧한즉 사너니라 하니 데스서로 올우물 칭호고 자하여 예수께
닐니 갈으되 뒤가 너의 근체요 하니 예수 갈으되 한 사람이 예루사
렘에도 못타여 리코가 너려오다가 도적을 만너여 그 옷슬 앓고 또 흑게
터거의 죽게 하여 버리고 갔는데 마즘한 제사이길 노너려가다가 보고
마주더너가고 또니 위사람이 그곳에닐으러나아가 보고 또한 마주디
너가 되사 마려한 사람이 히하여 그싸에닐으러보고 이엎비벼압페
갓가이하여 기린파술노써 그상한 곳에 부워싸미고 자기 증심으로써
티우고 인도하여 직덤에닐으리 돌아보고 이튼날 히호적에 돈 두돈을
취하여 너덤 주인을 주워갈으되 이 사람을 돌아보되 부비가 만약 터만
으면 너 돌아올새 여갑 푸리라 하여 시니 비숫에는 이세 사람에게 누가도
적안 너의 근체가 되갓너하니 갈으되 이엎비벼긴 자가 기니이다
하니 예수 갈으되 네가 이갓티 호라 하더라 히호씨여 예수 한마
을 에 들어가니 한 비인의 일음은 말다 라마 자 집에 들어가니 그의 증심
일음은 마리아이라 예수의 발아래 안저 그 말을 들던데 말다 엇 두년



일이만 아심이 밤바 예수께 나와 같이 되니 의동성이나 합자일을 영
투라 년테 주 뜻 하디 안년 잇가 청컨딘 명 하여 나를 돕게 호 소서 예
수 같이 되 말다 말다 야 비 념네 하여 번거 하던 거 시 뜻 티 만 으 나 그리 나
쓸 비 는 한 나 이 라 호 문 마 리 암 이 선 한 직 업 을 퇴 호 처 곳 앓 디 안 으 미 라

누가 데 습 일 장

예수 한 곳 게 서 빌 터 니 다 호 민 한 데 자 날 너 같 으 되 주 청 컨 딴 우리
를 빌 기 를 같 으 쳐 요 안 니 그 데 자 같 으 칩 갖 티 호 소 서 호 니 같 으 되 너 의
빌 셔 여 늘 으 되 아 바 니 아 아 바 니 일 음 으 로 성 을 삼 게 호 시 며 나 카 이 념
호 소 서 쓰 년 비 냥 식 을 날 마 당 주 시 고 우리 죄 를 사 호 여 주 시 문 우리 또
함 우리 개 진 자 들 사 호 여 주 미 니 이 다 우리 를 미 혹 게 인 도 티 말 으 소 서
호 여 라 또 같 으 노 만 약 너 의 등 에 한 사 람 이 벗 이 이 서 직 밤 에 나 아 와 같
으 되 벗 아 청 컨 딴 섹 세 기 만 나 를 꾸 이 라 너 이 벗 이 길 노 부 터 나 아 왔 년
테 니 가 공 급 할 거 시 업 가 면 데 안 게 너 디 답 호 처 같 으 되 피 롬 게 말 나
너 문 늘 이 무 닷 아 델 파 너 가 상 게 이 스 니 능 이 볼 어 나 너 를 주 더 못 호



맛다 하리니 너의게 말하 너니 비록 벗의 연교로 끌어 주더 안지 그간
절호 돌인 하 여브어 쓸비 돌응 하 여 주리라 니 도 너의게 말하 너니 말한
죽 너의 돌 주고 차 존 즉 만 니 고 문 놀 워 단 즉 열 너의 록 줄 리 니 물 운 구
하 년 자는 잇 고 찻 년 자는 만 니 고 워 더 년 자는 열 블 더 니 사 너의 흥 계의
비 된 자 누 가 그 아들 기 석 블 말 니 년 네 돌 놀 주며 고 기를 말 너 년 네 고 기
더 로 비 임 블 주며 게 란 블 말 니 년 네 전 갈 을 줄 야 너의 비 록 약 하 너 도
운 물 건 으 로 써 시 식 줄 줄 을 알 면 하 물 며 텨 부 야 영 인 으 로 써 말 너 년 자
를 주 더 안 옥 야 하 터 라 예 수 한 귀 신 을 쫓 추 니 이 버 버 리 라 귀 신 이 나
오 이 버 버 리 말 하 니 못 사 람 이 괴 괴 이 네 기 년 네 그 동 에 후 기 데 귀 왕 빌
시 불 을 빙 자 하 여 귀 신 을 쫓 년 다 하 고 또 후 이 시 영 하 여 하 늘 의 당 도 로
써 모 이 놀 구 하 니 예 수 그 뜻 을 알 고 블 니 같 이 되 물 운 나 라 이 서 루 다
투 면 반 드 시 멀 호 고 집 이 서 루 다 투 면 놀 어 더 너 니 반 약 사 안 이 서 루 다
투 면 나 라 이 었 다 써 설 야 너의 말 이 너 가 빌 시 불 노 써 귀 신 을 쫓 년 다
하 니 너 가 만 약 빌 시 불 노 써 귀 신 을 쫓 춘 즉 너의 자 때 비 는 귀 루 써 쫓 너



나고로테 너의를 판 죄 하리라 그러니 만약 하느님의 손으로써 귀
 신을 사춘즉 하느님의 나라이 너의게 남하엿더니라 장사가 감류하
 고 짐을 더스족 잇는 거사다 무사하되 오직 날닌자 날으려이 기면 곳그
 밋년 비 감류를 앓고 그 짐을 논우 너니라 나로터 부러함게 안은 차는
 나를 더덕히 미요 나로터 부러거 두디 안은 차는 헤티리라 하니 더력은
 귀신이 사람을 써나사 막에 힘하여 쉬이기를 찾다가 만년디 못하고 즉
 시갈으되 너나 온 벼집으르들어가리라 하고 날으리 그 정제이 슈리하
 물보고 이어가도 날굽귀신저보담 약한자를 더리고 다들어가거 하니
 곳그 사람의 나뉠이 전보담 더욱 심하더라 말홀써여 한네인이 솔이를
 더갈으되 주를 나온이와 견뎌 인자가 복이라 하니 예수 갈으되 하
 느님의 도를 듯고 더커년자의 복이 더크다 하더라 못사람이 모인셔
 여예수 비르소 말하거갈으되 이세상은 약한데 더고 구하니 셤디
 요나의 더고외여는 더고로써 보이다 인이 하갓다 요나니니 위사람으
 게 더고됨갓티인자 또한이 세상에 더고되리라 판죄홀써여 남방베왕



이 장차 날이 세상 사람을 죄주 문데 디극으로 부터와 소노몬의 디해를
들으니 하눌며 소노노보담 큰자여 괴이 너니라 판죄 흘서여 니니 위
사람이 장차 날이 이 세상을 죄주 문데 요나의 보이 무로써 회기 하미니
하늘며 노나 보담 큰자여 괴이 너니라 사람이 불을 혀그옥한 데와 말아
데 두디 인괴화더게 노우분들이 오년자로 그 빛출보게 하미라 몸게 등
신은 눈이 너의 눈이 만약 발근죽오온몸이 발 쇠홀이 유즉몸이 어둡
니니 고도 너의 인악 빛치이 두올가 조심하라 만약 너의 몸이 발가 일호
도이 두누미 업스즉 등썯 빛치네 게 빛치우년 것갓티 온전이 발그리라
하더라 말골서여 바리시인이 함께 밥 먹으려 청하미 예수 들어가 안
즈니 그 바리시인이 민저 손씻디 안괴역으물 보고 괴이네기니 주
빌너갈으되 너외 바리시인은 잔파반의 빛컨은 정이 하고 오직 너의 안
악인 즉 토식파악으로써 취와시니 미련한 자야 그 빛갓를 지은 자또한
그 인악을 짓디 안앗너나 오직 담윤비로써 구제한 즉 너의 정타 안으디
업스니라 죄화라 너외 바리시인 아너의 박하와 유향과 모든 치소를 열



이 그 하나님을 믿어 이 공도와 하느님 사랑하기를 피하나는 너의 맛당
 어 한 준비 요기도 가이인이 티 못혹거시라 진화라 너의 바리새인 아너
 의는 회당에 슈자와 결이 어셔 인사를 사랑하너니라 진화라 너의는 새
 딴 무덤갓트니 그 우에 행하너자 가아디 못하너니라 하니 한 법갈으치
 년스승이 볼너갈으되 선심님이 말을 하너거시도 한 우리를 휘방한다
 하니 갈으되 진화라 너의 법갈으치 년스승아 너의는 맛기 열여운 짐으
 로써 사랑으게 맞티고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믿지디 인으니 진화라
 너의야 너의는 선디의 무덤을 셔우도 너의 조상은 죽여시니 너의이갓
 티간 증거고 조상한 비를 도이네기 니테는 죽이고 너의는 그 무덤을 셔
 우미라고로 하느님의 디혜 보너시되 너의와 밋몸데 자룩데의
 게보너 견혹죽이며 혹군락하리니 창세써우 무로혹은 비선디의 피가
 님이 새더역동아오고 뜻이노의 피로부터 산가니 아성큰 단기게 죽
 운 피 새지브을 디라니 실노너의게 말하너기 다반드시 세더게 차즈
 리라 신화카너의 법갈으치 년스승아 너의가 디식의 별쇠를 아사스서

로니아가디안기나아가려하년지를막년다하더라 예수 나아오미
션비외뵈타라션안이심이다들이열이쑥트르출동하여기디킬그입
에나아오년늘어한가지를잡고자하더라

누가습이장

서여사람수만이고고고로서로발년데예수 먼저데자게닐너길으
되바리새인의누특은방비하라꽃거조션이니라덤꾼거슬낫타년디
인으며간득하기슨아리안으며업년니고로너의어두유데말한거슨
반은사발근데서듯고너의귀보부터미실에말한거슬반드시집구에
서보하리니너의벗말아너에게닐으너니몸을죽긴후게는능히말니
할고사업슨이를두셔워말나너에게말당이무셔워홀비를보일디
니사죽인후게원세이신능히디옥에더년이를무셔워하라니실노
너에게말하너니맛당이이를무셔워하라참사이다숫말이를듣는누
존애사디안너나그러나하느님의 약해서그한나를또한넋디인이
하고갓나의별이슬도또한다수가잇니니고로무셔워말나너의가수



다한참사이보담귀하니라너너의게닐으너니무튼나를사람압페서
아년자를인자가또한반드시테를하느님의 사자압페서알고나를
사람의압페서비반하년자를반드시하느님의 사자압페서비반하
리라무른인자를홍닐으년자는가이죄를면하되오직성신을욕하년
자는면티못하너니라사람이너의를더리고회당과판당과권세잇년
자의압페닐을씩여엇디써발명하며무어스로써말호고네베티말나
그씨여성신이너의맛당이말할비로써같이치리라못사람에한나이
같이되션성님청컨던너의동성을명하여나로더부러산업을논우게
호소서하니예수 같이되이사람아누가나를써워너의게공사하며
산업논우년자를삼우라하더냐하고이여못사람게닐너같이되삼가
탐심을금하라사람의성명이그가산년한데잇디안으니라하고또
비사로서말하여같이되한부자의뱃테소출이풍성하미스서로심각
하여같이되너가이곡석디릴곳이업스니장차어더하리요하고또같이
오되너이갓트니너의곳간을헐고큰거슬써워써너이모든곡석과물



건을 간덕히리라 하고 또 너 마음과 말과 맛과 마음아 너 물건이 만아 열
이히 쓸거슬 싸아 시니가 이수이며 음식하고 놀나고 오오식하느님이
널 너갈으되 미련한자야 이바음에 너의 목숨을 달닌즉 예비하비가
뉘게 잇갓너냐 진물을 몸에만 싸코하느님 으게는 가난한자또한 이
갓트니라 하고 이여테자게갈으되 고로 너의게 날으너니 목숨계무
이스로써 먹으며 몸여무이스로써 입을생네티 말나 목숨이 낭식보
담귀하고 음이의복보담귀하니라 가마귀를식과하라 시무디도안코
거두디도안코고 방도업고 꼭간도업서도하느님이 치너니 너의는
사이보담얼나나 귀하고 너냐 또 너의귀능히네로써 키에한자올터
하라 지극키자근거슬오이려능티 못하거던엇디그나문거슬네베하
라나리셋출싱각하라엇덧케자리나 피롭디도안코 방적도안이하려
도너너의게 날으너니 소노문이그모든영화할새여입은거시오이려
이한삿만갓디 못하니라 너의적게 밋년자야 풀은오늘들어에잇다가
너일은 화리에더디너니 하느님이 꾸미미이갓거늘하물며 너의냐



너의엇디써먹으며엇디써마시물구티말고또넬베티말나이다세상
 외방사람이구하년비라오직턴부는 너의쓸거술아니다못하느
 남의 나라을구한즉이모든플건을너의게더하리라무서워말나너
 의턴부 나라고로써너의주기를기거하너니라잇년거술과라구제
 하고자기를위하여쳐디안년주머니와다하디안년죄물을하늘에
 예비하라도적이갓가이못하고좀이먹디안년곳이라죄물잇년비에
 마음이드한잇너니라너의혈이를뚫고등불을혀고그주인이잔체집
 으로부터돌아오물기디리년자갓타하여널으러문을쇄덜면즉시열
 나주인이널으리그새물보고이종달이복이있다하리라너실노너의
 게널오너니주인이반드시셔를뚫고데의로하여금뚫게안지우고압
 폐서성기리라혹이경에널으며혹삼경에널으리그이갓트물보던이
 종달이복이있다하리라만약집주인이도적이어느셔여널을줄을알
 면반드시셔여그집을구녕썩루디안케하리니이를너의알나고로너
 의또한예비하여뜻안이홀셔여인자널으물인하라피들이갈으되이

비사를 할 문우리를 위하미니 잇가 못사람을 위하미니 잇가 주 갈으
되니가 올고 총명한 차인이 되어 여 주인이 맛된 비로써 그 집을 치데 하여
서로 양식을 논을 짜나 주인이 올새 여가 잇기 힘하 목본즉이 종이 북
이 잇다 하리니 니실 노너으게 말하너니 주인이 장차 그 오온 산업을 맛
티리라 만약 데종이 마음에 날으 되니 주인이 더더 올이라 하여 모든 비
복을 티며 음식 하고 취한 죽기 더디 안은 날 파아디 못하셔 여 주인이
날으리 신어 올티 안은 짜 파 갖튼 깃세 두리 라 종이 주인 의 뜻을 알고 예
비티 안고 그 뜻을 좇디 안년 짜는 티물 만이 바들 거시오 아디 못하 고 털
일에 합당 하물 짓년 짜는 티물 바드미 반드시 적으리니 무룬 만이 바들
짜는 반드시 말니 미 만으 니라 나가와 불노써 싸에 더더 만약이 무부 투
면너의 하고 짜하년 비안이라 니 한나 밥 팀네를 면티 못하디 니 일 움에
날으려는 너의 밋치 미엇더 하라 너외는 니 간와 셔 화 평을 세상에 터 투
물 삼너 나 너으게 말하너니 안이라 으리 하 나 금 닷 투게 하리 니 이제
써 후에는 한 집에 다 숫사람이 장차 닷 툄데서 이 들과 닷 투며 들이 서 이



파닷투고 이비가 아들 파닷투며 아들이 이비 파닷투며 오맘이 쌀과
투머쌀이 오맘 파닷투며 시오맘이 메니리 파닷투며 메니리가 시오맘
파닷투리라 하고 이여 못사랑게는 너 같으되 구름이 세로부터 불뿔보
고 너의 말이 비오리라 하면 과연 그러하고 바람이 남으로 불뿔보고 너
의 말이 더우리라 하면 또한 그러하니 거짓선을 행년 자야 너의 언더
의 기상은 분변 혼줄을 알고 언더이 세분변 혼줄을 아디 못하랴 또 언더
맛당 혼비를 스스로 아디 못하니 너를 송사하년 자로 함게 파당으게
나아갈 적에 길게 서 맛당이 마음을 다하여 노우물어더 테너를 형판으
게 살면 형판이 너를 아역으게 부터 옥에 가두물면 하라니 네게 말하너
니 호말도 감디 못하고 결난 꼬거키나 디 못하리라 하더라

누가 데 습삼장

그서 여 사람이 피나 토가 가니 너사 람의 피루 써 테 들에 석그물고 하
니 예수 님 너 같으되 너의 뜻에 가니 너사 람이 이갓티 밧년 거시 못가
니 너사 람 보담 더 죄가 있너 나 너의게 말하너 니 안이라 만약 너의 회



기를 안으면 또 한다 이 갓 망하리라 또 시노암의 탑 목어터 열야 들사
람을 죽오 시니 너의 뜻에 못여 루사 려에 거 하 사람 보 단 터 죄를 졌너 나
니 너의 게 말하 너니 안이라 만 약 너의 회기를 안으면 또 하 이 갓 망하
리라 하고 이 여 비사를 버 푸리 같으 되 한 사람이 포도 위에 무 화 파 남 기
잇는데 와셔 열음을 구하 다 가 었디 못하고 풍인 게 볼 너 같으 되 너 산년
을 와셔 열음을 이 무 화 파 남 게 구하 여 었디 못하 여 시니 석을 거 시 었디
사 만 잡으 리 요 하 니 디 답 하 여 같으 되 주인 닥 금년에 가 시 용 남 하 여 너
둘 우 과 고 걸 금을 주 워 후 열 음 이 밋 치 면 너 니 와 안 이 열 니 면 석 으 소 서
하 더 라 사 밋 일 게 한 회 당 게 서 같 으 치 년 테 한 부 인 이 실 음 하 년 디 습 팔
년 게 곱 당 이 능 히 페 디 못 하 년 자 이 스 니 예 수 보 고 불 너 같 으 되 부 인
아 너 병 을 노 우 라 하고 이 여 손 을 디 이 니 부 인 이 즉 시 열 이 를 페 고 영 화
를 하 느 님 게 돌 니 더 라 회 당 치 데 한 자 예 수 사 밋 일 에 병 곳 티 물 보 고
성 이 나 못 사 랑 게 볼 너 같 으 되 일 하 년 거 시 었 신 데 그 날 에 와 셔 곳 티 불
구 홀 거 시 디 사 밋 일 에 올 티 안 타 하 니 주 같 으 되 거 죽 션 을 하 년 자 면



여 너의 사뱃일에 누가 쇼와 나 구를 공이에서 푸리 잇살어 물엿 이디 안
 으라 이 부인은 암라 함의 자손이 사한의 믿음 비되어 습 팔년 위 테 사 뱃
 일 이라고 앓 당이 이 일 민 데 푸 디 안 으라 예수 이 를 알 하 미 모 든 디 려
 하 년 자 붓 구 러 위 하 니 못 사 람 이 그 모 든 광 명 한 일 하 물 보 고 즉 시 즐 거
 워 하 니 고 로 같 으 되 하 느 님 의 나 라 이 무 엇 갓 트 노 니 무 어 스 로 써 비
 하 리 요 이 한 알 거 지 종 지 갓 트 니 사 람 의 취 한 비 되 여 그 동 산 에 심 운 즉
 자 리 여 온 남 우 를 일 우 미 공 동 에 사 이 그 가 지 여 머 문 다 하 고 또 같 으 되
 너 무 어 스 로 써 하 느 님 의 나 라 을 비 하 라 누 록 을 하 베 인 이 가 저 서 말
 전 기 루 에 식 거 고 루 이 션 임 갓 다 하 터 라 예 수 성 촌 을 디 너 여 같 으 치
 고 예 루 사 렴 을 향 하 여 행 하 년 데 후 이 날 너 같 으 되 구 완 을 엇 년 자 적 으
 나 잇 가 하 니 같 으 되 힘 놀 다 하 여 조 분 문 으 로 나 아 가 라 너 너 이 게 말 하
 너 니 나 가 가 기 를 구 하 여 었 디 못 흔 자 만 으 리 라 밋 집 주 인 이 날 어 문 을
 맛 으 너 의 뱃 게 서 서 문 을 쥘 디 너 날 으 되 주 아 주 아 문 을 열 으 소
 서 한 즉 데 데 담 하 여 같 으 되 너 이 가 어 디 로 오 너 키 아 디 못 하 갓 다 하 연

너의 길은 되우리 일즉 주의 압페서 육신하고 주 또한 우리 결이
 서 같은 것 다 한즉 더 같은 되니 너의게 말하 너니 너의가 어디로 오너니
 하디 못하갓다 너의는 물의를 힘하 너자니 나를 써나 가라 하리라 서여
 너의 압디 함파 이삭과 야곱과 밋모둔 선디 하느님의 나라에 이스를
 보고 너의 밧게 쫓겨나 즉 시의 꼭 절치 하리라 동세 남북으로 부터 사람
 이 장차 큰으리 하느님의 나라 뜻게 안즈되다 못후에 잇년자는 흑민
 저가 되고 또 흑민 저 잇년자는 흑후가 되너니라 하더라 땅일에 바리시
 수인이 늘으리 같은 되여기를 써나 가라 하운 해롯이 너를 죽이고 사하
 미라 예수 너 압하져 같은 되가 데에 우게고 하여 늘으되 오늘과 너 일
 게 너 귀신을 쫓추며 병을 곳디 리니 데삼 일게 너의 날이 일을 디라 다 못
 오늘과 너 일과 모래는 너 맛당이 회하 문 선디가 예루사렘 밧게 서는 망
 티 안으니라 예루사렘에 루사렘 아너 선디를 죽이며 보너 불 밧드려 너
 의게 나아 온 자를 돌노써 티 번자야 너외 아델모우고 자하기라 암간
 기 식기를 날이 아레 모움갓디 한디가 몇번이냐 너의 윈티 안으니 보라



너의집이장차비린거시되더라너실노너외게말하너니나를보디못
하그너의주의 인음을부탁하여온자복이잇다말할새야보리라
하더라

누가데습사장

마침사밧일에예수 바리시한두목의집에 들어가 밤 먹으려 하던데
못사람이엿보논디라 한고탕증하년자그암께이스니예수 법결으
치년스승파밧바리시에게논너같은도사밧일에병곳디마가하노하
나못사람이잠잠하거늘예수 그사람을곳러보노고이엿못사람게
같은도너의똥에쇼파나구가움불개싸디미이스면비록사밧일이나
누가즉시살어너이디인으려하니못사람이그말을뒤답디못하더라
예수 청하여온사밧이슈지떡하물모고의사를버주러같은도사람
이너를청하여혼연에나아가되슈자에안디갈나접주면너보담몸
뿐사이서청하늘보면너파테를청한사람이나아외비게보너같은도
자리를너여이사람을주라하즉너부구러위만석으르나아가라오



작청을 새여가 말석에 안저너를 청한자나 아와너으게 날너갈으되 벗
은올나인즈라호면곳너의 영화를 함께 안즌자으게 어들이라 무른놈
뿐테호년자는 반드시 밋게호고나 존테호년자는 반드시 돕게호니
라호고 또 청한자으게 날너갈으되너혹틈심과 전악을 뒤호셔여 벗과
동심과 친척과 밋부자근체를 청티말나 접푸건던테또한너를 청호여
너갑푸물밧으리라오직연석을 비설호셔여가난한자와 병신과 절누
익이와 쇠경을 청한즉너복이이슬거시테셔너의게갑푸미업고올운
자닐어날셔여너장차갑푸물어들이라호니 함께 안젓던한사람이이
를듯고갈으되하느님의 나라에 먹년자복이라호니갈으되혹이더
연늘비설호고 청한비싸만은테잔체셔여종을 보너여 청한키싸으케
고호여갈으되오소서 비물을 갖추와다호미 못사람이 갖디호여사양
호되그한나은말이너 밧을 샀더니 모루미가 보가스니 청건던너사양
호물준호소서호고한나은말이너 쇼다숫쌍을 샀다가 시엮조자호
니 청건던너사양호물준호소서호고또한나은말이너체를 취호고



로 능히 가디 못하갓다 하니 종이 돌아와 죽인게 그 일을 고한 뒤 죽인 이
 노하여 그 종을 명하여 끌고 되속키 성등에 큰 벌이와 골목에 가가 난한
 차와 병신과 쇠경과 절누이 돌인도 하여 오라 하니 종이 끌고 되죽인
 남영도 노하여 서도 오이러나 문자리가 있네이다 하니 죽인 그 종이
 날디 같으되 디길에 와 바주역에 나가 사람을 강청하여 디려다 너질
 에 최우라 하니 니라 너의게 말하니 전에 청하미 사람은 한나 토너
 참체를 맛보미 업스리라 하니 열어서 사람이 함께 행하년에 수 들
 아보고 같으되 만약 너게나 아와 그 부모와 체자 파동 심파 누이 파 밋자
 피 목숨을 미워 안자는 능히 너외 데자 되디 못하 고 그 습적 가 풀지 고
 나 물 좃디 안 년자는 또 한 능히 너의 데자 되디 못하 너니라 너의 누이가 탐
 을 서우 고자 홀던던 인제 안저 그 부비를 게티 안 꼬족 키 씨 일을 일우라
 첨 푸던던 그 터 올 두 고 능히 일우디 못하 면 보년자 다우서 같으되 이 사
 람이 일을 시작하 고 능히 일우디 못하 다 하니라 어느 국왕이 나가 다
 른 왕으로 더 부러 싸움하면 인제 안저 공논티 안게 능히 일만으로써 데

이만으로도 티년자를 디역하라 그리티안으면 오어려머려실천에
사자를 보너 여화친볼구하리니 이갓트역무튼너의가운데잇년비를
다비리디안년자는 능히너데자되디 못하리라 소공은 도은거신데다
못그맛을 힐으면 엇디 씨새게하라 밧데도 맛당티안꼬 걸금에도 합당
티안꼬 오직 밧게 비리너니라 귀이시연들으라 하더라

누가 데숨오장

그서여모든세판파죄인이나 아와듯년데바리신파선비용일거
같이되데죄인을 디려함게 밧역년다하니 예수 비사로써같이되너
의어느사람이 일뵈씩양에서그한나이패면아직아흔아홉을 들어
두고기펜거술살나안디메늘으디안이라 만년죽거워의기여지고
집에닐으리 그벗파근체를모우고같이되날노리부러함게즐거워하
자니 펜비양술만니엿다하리라 너의게말하너니 이갓티죄인에한
나이회기를한죽하늘에서즐거워히기를회기쓰디안을아흔아홉을
온사람보담승하리라 어느부인이 온돈 열남에서그한나을일이면들



을하며 짐을 쓸어 자세이 차자 반너 메느으디 안으랴 만년즉 그 벗파근
체를 모우고 같이 되날 노더 부러함게 즐겨워하야 할은 빈돈을 만년
다 하리라 너의게 말너니 이갓티 죄인에 하나이 회기한즉 하느님의
시자 임패 또한 즐겨우미잇너니라 또한 같이 되한 사람이 두아 들이 잇
년 데미즈막이 그아 밤게 말하여 같이 되아 반이 산업으로써 너의 것부
를 주소서 하미이여 산업을 논아 주니 후에 열어 날이 못하여 마즈막아
들이 다 거두워 면데 노닐어 거괴서 규모업서 그 산업을 허비하여 무
다 모신한덕음에 그싸이그게 괴황하여 비르 소군돈하여 이여가 그곳
한사람으게 붓두니 데 밧테 보너 여도야 지를 치너 데 도야 지 먹년씩디
로써 비들치우고 자하되 주년 사람이 업스니 방야으로써 다라 같이 되
너의아 반이는 싹군이 열미루되 그양식이나 문거시 잇년 데 나는여괴
서 주우려 죽어 가니 너의아 반이게 돌아 말하기를 아 밤이 너 죄를
하느니라 밧아 반이갓피이더시니라 다시는아 반이아 들이라 하미합
당터 못하가시니 날노하여 금아 반이 싹군파갓티네기 소셔하갓다하



고이여닐어그아방게돈아가넌데샹거오이려멀어셔그아밤이보고
어엿비벼달아가그독을인고입을맛초니아들이갈되아반이너
죄를하느님피 밋아반이게이더시니다시는아반이아들이라호미
합당디못호갓너이다호니아반이종은며호여갈되지극키아름다
운웃웃속키취호여입피며갈악지를그손에세우며그발게신을신
기고또슬신송아지를들어다잡고우리먹으며놀자호리라이아들은
죽엇다다시살며힐엇다다시만년엇다호고이여하게줄거워놀더라
미즘낫아들이밧테셔놀아오다가장차집에갓가와풍악파춤추물듯
그이여한종을뵈너그연고를무룬듯갈되셔방님동심이풀아와서
쥬인님이살진송아지를잡아시니그병업시다시어드쿨위호미라호
니맛아들이노호여줄너늘어가디안으미아밤이나아와권호니던담
호여골으되너아반이를심기년디열어히여명을어그리타디안아서
도아반이한나양의쇠기를주워너의벗으로더부러하게놀나안터니
오직이아들은끼집질노써아반이산업을다먹엇넌테오자즉시위호



여살친송아지를잡앗다하니아밤이갈으되아들아너는나파항게호
고너의잇년비가다베게벗터시되오직너의등싱은죽엇다다시살고
헐엇다다시만니엿기로우리맛당이놀며즐거워한다하더라

누기습독장

예수 또한테자으게빌너갈으되혹이부자의차인을산업허비하무
로써그쥬인게고한디쥬인이불너갈으되너듯년비가베부순일이냐
너보넨일을삿너고다시일을보디말나하니차인이스서루갈으되쥬
인이너일보던직분올아스니너장차엿다하리오싸을팔너도힘이업
고동녕을홀너도붓구러올라나니홀비를아니일보다너턴후에사람
으로나를그집에더접게하리라하고이여쥬인의빛진자를한나식볼
너다그한나으게빌너갈으되너의쥬인게진거시얼미냐갈으되기
림일뵈말이라하니갈으되너문세를가져다즉시안저우습말이라쓸
아하고또그한나게빌너갈으되너진거시얼미냐갈으되림일뵈석이
라하니갈으되네문세를가져다야두섬이라쓸아하되쥬인이이불의



옛차인을 칭호문그형호미공호호물인호미라더키이세상사람이그
동뉴오게는광명한사람보담더공고호니라너오게말호너니맛당
이불의의지물노써벗을사구야업서던후에시리금근잇년집에더
접게호리라자근데올운자는근데도올괴자근데불의한자는근데도
불의호너라만약너의불의지물에올티안으면취참된거스로써너
의게부탁호며반약너의사람의하여올티안으면취너의히로써너의
를주라한종이두주인을섬기더못호문혹이를미워호며테를사랑호
고혹이예벗부며테를경이네기미니너의능히하느님과파 지신을섬
기더못호너니라호더라바리신인은지물을도와호년고로이말을듯
꼬미우수니예수 같으되너의사람의악페서스서로올물칭호되
오직너의마음을하느님이 아너나라사람이놈피년비는하느님
오게는고약한거시라요인너오게큰으려늘법파션디잇고그후에하
느님의 나라복음이편호여사람나당힘써나가너의덕턴디업서더
미늘법한회너머뎡보담오이러쉬우니라무론그체를비리고말니



흥년자도 음난을 흥흥미요 그 비린비를 취한 자도 또한 음난을 흥흥미
 라한 부자이셔 자디와 가는 비를 입고 날마당 변화이 놀고 오은 몸에 현
 데난 두결나사로 라한 자를 부자의 문밧게 두워 상에서 서려던 거스로
 써 비부러려 흥터니 가이가와 그헌 데를 할터미 마즘 두결이 죽어 현사
 붓들어 암라함의 품에 붙으고 부자 또한 죽어 장사 흥미디 오말년 가운
 데 눈을 들어 멀니 암라함 파또나사로 그 품에 이스를 보고 여여 불너 같
 으되 너의 조상 암라함 아나를 어업 비네 거나사로 를 보너 여 손 씻을 물
 에 띄어 다니혜를 차게 흥 소셔 너의 불 씻치가운데서 말년이 심흥니 이
 다 흥니 암라함이 같으되 아히야 세상에 이슬씨여 너는 도유거슬 밧았
 고나사로는 못된 거슬 밧아 시불싱과 흥라이제는 안위를 엇고 너는 말
 년을 밧너니라 다 못이 썩안이라 우리파너의 사이여 큰 옹거리로 한 텡
 흥여시니 어괴로 너의 게 건너가 흥여도 능티 못흥고 기괴로 너게
 나오고 흥여도 또한 능티 못흥갓나 흥니 같으되 그런 죽조상게 구흥
 너니 나사로 를 보너 여 너아반이 집에 가너 흥데다 숫사 랐이 이스니 하



여금간중하여네언이또한이말년하년곳오기를면계호소서압라함
이갈노되데모쇼와션디이스니들으리라하리갈으되그러티안수다
만약숙으무로못터나가년자이스면데반드시히리하리이다하니
압라함이갈이되만약모쇼와션디를듯디안으면곳죽으무로못터니
년사이사도네또밧디안으리라하더라

누가네습칠상

예수 또데자으게닐너갈으되사람을것터년거시능히오디안으미
업스되다뵈오게하년자가치화니라이적은사람에한나올것터게홀
디닌차라리큰망돌볼복에미고바다에터디미니맛당이스서로조심
하라만약너의동성이죄를네게어든속죄망하여회기환속샤하고만
약하루닐굽번네게죄들잇고크굽번네게돌아와갈으딘너회기하였
다하면맛당이샤하라하니몸네자쥬게닐으되척전던우리의밧으
물더호소너쥬갈으되너의간약거지종지한알가콤밧으미이스면
곳이생남글명하여살이를세여바다에서무라하여도또한너의를들



을 더니 너의 가운데 어느 사람이 종이며서 혹 밧갈며 짐 칭치다가 밧트
 로 돌아 오미느니 같으되 너 속키나 외게 안즈라 하엿디네 밥을 예비
 하고 셔를 씨고 나를 성기다가 음식 다 먹은 후에 너 먹으라느니 디안으
 라 종인 델이 명을 좃차 하면은 통이 업스랴 이가 티 너의 명한 비를 힘
 하면 맛당이 스스로 노닐으 되 쓸데 업스 죽이 맛당이 힘 흘 비를 힘 하엿다
 하리라 예루사렘에 갈셔 여시미라와 기니너를 디나가다가 한촌에 날
 으니 뵈 남풍 하년 자 열 사람이 만니여 멀니셔 서 숨이를 떠갈으 되 선성
 예수는 나를 어업히네 기소서 예수 보고 같으 되 너의 가스서로 제
 사으게 보이라 하니 데 탈갈셔 여 뵈 남풍이 간성하더라 그 둥한 나이나
 으 불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영화를 하느님 으게 돌니고 예수의 발
 아 테 업더 여 샤례 하니 이사마라 사람이라 예수 같으 되 열어 사람이
 정티 안았디나 그 아웁은 어디 있느냐 이타국 사람 외쳐는 돌아와 영화
 를 하느님 으게 돌니년 자를 만니미 업스냐 하고 이겨느니 같으 되 볼
 어 돌아가라 네의 밋으미 너를 구완 하엿다 하더가 바리시인이 하느님



의 나라이어느새여닐의봉무룬디예수 디답호여같이되하느님
의 나라이낫타나게닐으디안올디니또한말티못홀거시어괴있다
터괴있다호되히느님의 나라이너의속에잇너니라호고또테자기
닐디같이되세장차닐으러너의인자의한날을보고자호나시려금보
디못호리라혹이너의끼고호여같이되어괴있다혹터괴있다호되나
가디말고숫도말나번기하늘게어괴셔번듯터괴셔빛남갓티인자
제날에또한이터호리라다못반드시민저만이고상을밧고비리물이
세상기보와스니또노아의세갓티인자의날게또한그리호리라사삼
이음식이취하다가노아비여드년날게밧쳐홍슈닐으러다멸호고또
는세갓티사람이음식호며당사호며곡석심우며집짓다가다못뜻
이소도나에나가년날에하늘노부터불파누황이니라멸호여시니
인자낫타닐게또한장차이갓트리라그날게집우에잇년자그괴명
기입게이서도너려와취티갈며밧테잇년자돌아오디말고뜻의체를
신하호라그심명을보존코자호년자는반드시힐코오직힐은자는반



시보존하시라너너에게말하시니그밤에두사람이자리를함께하년
데한나온더러가고한나온것이며두네인이함께망질하년데한나온
더러가고한나온것이며두사람이밤에잇는데한나온더러가고한나
온것이라하시니두사람이무리같이되슈 어느곳에이슬잇가같이
되숙은것잇년곳에망이반드시모이너니라하시더라

누가데습팔장

예수 또비사를말하시며데달노늘밀고낙담티말게하시어같이되아쿠
고올한관당이이서하느님을 두려워안으며사람을혐의티안년데
그고을에파부이사늘와같이되청컨년원을위슈에게퍼주소셔하
되올이허티안코후에스서로블너같이되너비록하느님을 두려워
안으며사람을혐의티안되다못이파부가나를피롭게하시니창차
그원을퍼늘와나를문주게하시리라하시니쥬 또같이되이분의
의관당에말하년비를들으라그썬빅성이밤낮빌면하느님이 비록
참우나엇디그원을퍼디안으라너너에게말하시니반드시속키퍼리



라다 못인 자닐으리 밋으 볼세상에 만니라 스서로 올운테 호고 사람을
멀시 호년자를 예수 비사로 말호여 갈으되 두 사람이 성년에 올라 비
년데 한나 온바리시인요 한나 온세관이니 바리시인이 호올노서서 빌
어 갈으되 하느님아 하느님께 감사호너니 나는 다른사람갓티도
식호며 불의호며 음난을 안코 또이세관과도 갓디 안은거시닐블에여
두번금식호고 또 무릇잇년 비로써 열에그한나 올던이더이다 호니세
관이 멀니서서 감이 눈늘들이 하늘을 올리르다 못호고 이여 가슴을터
갈으되 하느님 나 죄잇년 사람을이 열비대기 소서호너니라 닐너으
게 말호너니 사람이 집에돌아가네 보단 올우를 칭호니 무릇 눈뵈테
호년자는 반드시나 자디고나 준테 호년자는 반드시 돕과니너니라 호
더라혹이 어린아희들더리고와 예수 으게민지오고자호너데테자
보고최망호니 예수 불너오고갈으되 어린아희를 용납호여너게나
아오게호고금티말나 하느님의 나라사람이이갓트니라 닐실노너
이게 말호너니 어린아희갓티하느님의 나라를맛디안년자는시리



금들이 가며 못하시니라 하시더라 한 관당이 무리 같이 되신 한 선성님
 장차 었디 하야 영성늘 어들이요 하시 예수 같이 되너 었디 씨 나를 선
 타 창하시니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 갓하시니 이라 게 명은 너 아 년
 비니 음난 티 말며 살인 말며 도적질 말며 망년 된 간증 말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 같이 되 이 거스너 이 려서 보 탐 다 덕 기 었 너 이 다 예수
 듯고 같이 되 너 오 이 러 한 나 이 이 즈 러 터 시 니 잇 년 비 를 다 파 라 가 난 을
 긴 단 즉 식 물 이 하 늘 에 이 술 이 니 선후 사 나 를 좃 추 라 하시 그 사 람 이 이
 홀 듯 고 근 심 이 심 호 문 관 부 자 의 연 고 터 라 예수 보 고 같이 되 지 을 잇
 년 자 하느님의 나라에 나가 가미 열 여 운 디 라 약 디 바 늘 귀 여 나 가 미
 부자 하느님의 나라에 나가 가년 것 보 님 오 이 러 쉽 다 하시 듯 년 자 같
 으 되 그 런 즉 귀 능 히 구 완 늘 어 들 잇 가 같 으 되 사 람 이 능 티 못 한 비 를 히
 느님 인 즉 능 하시 라 피 들 이 같 으 되 우리 일 절 을 비 리 고 주 를 주 찾
 너 이 다 하시 같이 되 너 실 노 디 으 게 말 하시 니 사 람 이 하느님의 나라
 을 위 하 여 집 파 부모 와 동 성 파 처 자 를 씨 나 면 금 세 처 열 어 품 습 었 고 너

세여 영생을 었디 못흐년 자 업스니라 예수 열두테 자를 디리고 갈으
 되 우리여 루사림어 올라 간 즉 선디 괴룩한 빈인자를 갈으 친 빈 팔이 다
 반드시 일우리니 인자 외방 사람으 게부터 히롱하며 능욕호며 출밧으
 며 썩첫막으 로티며 죽인즉 네 삼일만에 다시 날갓다 호되 디자 한라 디
 도 썩밧디 못흐니 그 말이 감주이 워닐온 비를 아디 못호디라 야니가애
 갓가 온세여 하신 것이 권역에 안지 동녕호다가 사함디니 가골듯고 연
 고 들무룬디 흑이 갈으되 니 살일야수 디닌다 호니 쇠경이 불너 갈으
 되 다 밧의 후에 예수는 나를어 염비네기 소셔호리 압페행호년 자 무
 지기 하거 금삼삼호라 호되 데더크게 불너 갈으되 나 밧의 후에 예수는
 나를어 염비네기 소셔호니 예수 서서 명호여 디려다 갓가 우리 무
 러 갈으되 나더 러 무위슬네게 호고 자호되 나 갈으너 주아 니 보물 었
 고 자호너 이다 예수 갈으되 보라 네의 밧미디를 낮게 한다 호니 이
 여즉시 보년 디라 예수를 좃차 영화를 하느님께 돌니니 못인성이 보
 고 또 인하느님을 칭찬호디라



누가데습구장

예수 야니가예들이가디너가넌데한사람의일음은삭키너세관의
두목으로부차라예수를 엇던사람인가보고자호되사람이만아보
다못하문키가척으미라이여압푸로말아가생남우에올나보려하니
예수 장차일노말무야디닐가호미라예수 그곳에닐으리올어려
보고같으되삭키야속키너리라오눌니가반드시네집에머물갓다호
니이여급피너려즐거워영접하니못사람이보고응얼걸여간으되데
죄인으게가머문다호터라사키셔서주게 보너같으되주야 너잇
넌비절반으로씨가난을건디되만약누히를토식호여스면사급슬갑
갓디이다호니예수 같으되오늘구와이이집에남호문그또한알리
함의자손을인호미라인자오문힐은차를차자구완호미라호터라못
사람이이말늘들을씨여예수 또비사름말호문예로서럼에갓가와
못사람의뜻에하느님의 나라이장차나타나물인호미라고로같이
되귀한사람이만데가나라복호늘빛고도라오려호여그종열을늘너



은 열근을 주며 날 너 같으되 당사 하여 나 도라 오물 기 너리라 하미 그 뵈
성이 미워 하여 사자를 그 뒤로 보니 여 같으되 이 사람으로 우리게 왕 노
릇 죄자 안이 하갓다 더니 마름나라 올 밧고 돌아와 명 하여 은 준 종 열을
물 니다가 당사 하여 열이나 넣었더니 알고자 하니 그 한나 이 날으러 같
으되 주인 남 주인의 한근으로 열근을 넣었더니 다 하니 주인이 같으되
올 타 선 한 종이 여 너 자 근데 올 아스니 열근을 권세를 치 데 하라 하고 그
뒤 음 이 날으러 같으되 주인 남 주인의 한근으로 닷근을 넣었더니 다 하
니 주인 이 또 하 날 너 같으되 너는 다 숫고 올을 치 데 하라 하고 또 그 뒤 음
이 날으러 같으되 주인 남 주인의 한근이 어긋 잇더니 다 닷 슈 전으로 써
싸 간 그 후는 주인 은 엄한 사람이 라 두 디 아 온 데 취 하여 시 무 디 안 온 데
거 두 놓 니 무 서 워 하 미 라 하니 주인 이 같으되 약 한 속 아 너 비 입 으로 말
무야 너를 판 죄 하 리 라 네 가 나 를 엄한 사람이 라 두 디 안 온 데 취 하여 시
무 디 안 온 데 거 두 놓 을 알 단 된 것 이 니 온 으 로 써 저 자 게 두 워 니 가 온
후 세 그 나 새 지 병 하여 취 하게 안 앓 니 나 하 고 이 여 자 우 를 명 하여 같



되드한근을 아사 다 열근 잇년자를 주라 하니 갈으되 주인의 데 열근이
 잇니 이다 하니 갈으되 너으게 말하너니 무룬 잇년자는 받드시 더 주
 고 업년자는 그 잇년비 재지도 한 반 드시 앓고 다 못년의 원수와 나로 왕
 노릇의 재안이 하던자는 슬어 다 닙 압페셔 버이라 하너니 라 말을 다 하
 고 암후로 행하여 예루사렘에 올라가 마즘한 산에 불으니 일음은 감남
 산인 데 백범귀와 백범니 여갓가 운디 라 두테 자를 보너 여 갈으되 너의
 압촌에 가들어 감셔여 재근나 구민거 슬만 불디니 종년 약본 사람이 업
 너니 라 풀어 슬되 만약 너으게 풀어 무엇 하라 너나 무루면 더 답하 여 갈
 으되 주의 쓸거시라 하라 보너 엇던 사람들이 가파 연그 말한 비갓티
 단년여 풀셔여 그 주인이 불너 갈으되 나 구 풀어 무엇 홀나 너냐 하민 갈
 으되 주의 쓸거시라 하 고 이여 슬고 예수 으게 나 아와 저의 옷슬나
 구우에 늦고 예수를 튀우고 행호셔여 못 사람이 옷스로 썬길에 페터
 라이 무갓가와 감남 산에 날일 곳에 불으미 못테 자즐거 위 큰 소리로 하
 느님을 찬미 하니 본비능한 일을 위 하미 더라 갈으되 주의 일음은

四一



로써와왕호년이는복이라하늘에서화평함과지극히높은데영화라
하니못시럼등에두어바리시인이예수께
님너같은도션성님데자
를칭망호소서하니답호여같은되너
에게말호너니만약이사람
들이잠잠하면모든것이반드시말호리라
호터마즉갓가우미성을
보고위호여올어같은되만약이제너의
날에평안한일관홀출늘알면
다히이거니와다못이제너의눈에
쉬기니날이차차블이러너의위슈
토가성을싸아너의룩둘너사면으로
되키고또너파너의지식을메티
어고을을우게깃디다안은너의돌아
보던날을아다못호물인호미
라호너라이여성년에들어가당사를
싣추며널너같은되클게널너시
되너십은비년집인네너의씨도적의
수혈출삼년다호고날마당터에
서같은치니제사당파선비와뵈성의
높은자도모호여숙이고자호되
다호호비들엇디못호문뵈성이다
마은싸들이물인호미라

거가네이습장

하루드예수 성년에서뵈성을같이쳐부음을
던호년테모든제사당



파선비와 땅노나와 같으되 너 우리게 무슨 권세로써 이를 힘히며 너를
 이 권세준자가 된디고 하라 하니 예수 디답 하여 같으되 너 또한 너의
 게한 말을 돌을 거시니 니게고 하라 요안니의 법팀네가 하늘노 말무앗
 니나 사람으로 말무앗디냐 하니 그사람들이 사사라이공의 하여 같으
 되만 약 하늘노 말무앗다 하면 데 반드시 같으되 었디 밋디안너냐고
 사람으로 말무앗다 하면 비성이 다들 노써 우리를 털이라 하문 비성이
 요안니를 선디로 알미라 이여 디답 하여 같으되 어디로 말문디야 디못
 하갓다 하니 예수 같으되 너 또한 무슨 권세로써 이를 힘히며 너의게
 고티인이 하갓다 하고 비사를 말하여 비성이게 같으되 사람이 포도원
 을 심거 품인늘 세주고 다른 싸에가 올이 잇다가 기약에 밋처한 종을 보
 니여 품인으게 나아가 하여 금동산에 싣파를 밧티라 하니 품인이 터거
 저이돌아가게 하니 또 다른 종을 보니여 데 또 티고 업세이네 거저이
 돌아가게 하니 또 세번치 종을 보니니 데를 또 샹개 하여니 비리니 동산
 주인이 같으되 장차 었디 하리요 너사당 하년아 들을 보니 면데 아 마공

경히라 하되니 동인이 보고 죽지 서루의 논하 여같이 되이는 후사니
죽여 산업이 우리게 돌아 오게 하야 고이 여 동산 밧게 쫓아 죽이니 원
쥬장 차 었다 써 체 티 하 리 요 반 드 시 와 이 동 인 을 멸 하 고 등 산 을 다 른 사
람으 게 붓 티 라 하 니 듯 년 자 같 으 되 이 거 시 말 안 이 우 다 예 수 마 주
보 고 같 으 되 클 에 날 은 비 장 인 이 비 린 비 돌 노 집 모 통 이 첫 들 을 민 던 다
하 문 었 다 나 무 룬 이 돌 우 에 너 머 디 년 자 는 반 드 시 상 하 고 이 돌 이 그 몸
우 에 너 머 디 년 자 는 반 드 시 같 기 되 니 라 하 니 써 여 모 든 선 비 와 제 사
당 이 그 비 사 를 하 여 자 기 를 같 이 치 년 줄 을 알 고 잡 고 자 하 되 비 성 을 무
서 위 이 여 엿 보 와 탐 직 을 보 니 여 거 죽 을 운 사 람 인 텨 하 고 그 말 에 하 를
잡 아 방 뇌 의 권 세 여 붓 티 고 자 하 니 탐 직 이 무 리 같 으 되 선 성 님 우 리 선
성 님 의 말 하 년 비 와 같 으 치 년 비 가 다 올 온 줄 을 아 년 거 시 의 모 로 세 사
람 을 취 티 안 고 오 직 참 되 무 로 써 하 느 님 의 도 록 연 하 기 니 이 다 우 리
가 세 를 리 산 으 게 밧 티 미 맛 당 하 니 잇 가 예 수 그 례 게 톨 알 고 같 으 되
온 든 한 님 푸 로 써 너 게 보 이 라 누 화 상 파 괴 호 가 잇 너 나 하 니 디 팔 하 여



같으되 키산이니이다 같으되 클언즉 키산외 물건으러 써 키산으게 들
 니고 하느님의 물건으러 써 하느님으게 돌니라 하니 탐직이 빅성
 을 당하여 그말에 하를 잡더 못하고 또 그 디답을 괴괴이네 거 잠 잠하더
 라 사 두 키인의 말이다 시니 년 자업다 하여 갓기나 아와 물어 같으되 선
 심님 모소우리를 보야 닐너스되 만약 사람이 딩네는 잇고 직 직업시 죽
 으면 동심이 그쳐 취하여 직 직을 나아 주고 형테 닐 급 사람에 맛 자 카
쳐 취하여 직 직업시 죽고 그 들 직가 그 쳐 취하여 또 한 직 직업시 죽
 고 그 세 직가 취하여 그 닐 급 직 재지 또 클어 하여 다 직 직업시 죽고 그 후
 에 네인이 또 한 죽어 스니다 시 닐 세 여테 누의 쳐가 되리 잇가 하문 닐 급
사 람이다 일 즉 취 물인 하미라 예수 같으되 이 세 상 사 람이 시 집 도
가 고 당 리 도 가 되 오 직 테 세 상 파 죽으 무로 말 무야 다 시 닐 물 맛 당 이 어
들 자는 시 집 도 안 가 고 당 리 도 안 가 며 또 한 다 시 죽 디 도 못 하 문 던 사 갓
고 또 하 느 님의 아 들 이 되 미 니 다 시 니 년 사 카 이 라 죽 운 자 다 시 닐 클
모 쇼 설 기 편 에 발 겨 시 되 주 를 칭 하 여 암 라 함 의 하 느 님 이 삭 의 하

느님 야꿈의하느님 이라하여시니되리하느님은 죽은자의하
 느님이 안이요이산자의하느님 인거시못사람이데로말무야살
 물인호미라하니선비수인이되답호여갈오되선신의말삼이올우니
 이다하니 후에감이다시못디못하더라 예수 못사람으게블니갈으
 되사람이엇디키리스토를 다빛의자손이라하너냐시편에다빛이
 스서로말이쥬 너의쥬게 날오되너의우견에안저너의원슈로
 네반등되기를기되리라하니 다빛이키리스토를 쥬라 칭한즉엇
 더그자손이되랴호고못뵙성들을씨여테자게블너갈오되선비를조
 심하라더의는긴웃입고던니기를도와호며겉이에셔인사함파회당
 에좁은자리와연석에슈자를도와하니그려하나파부의집지몰을삼
 겨거죽길게비니그죄밖으미반드시더욱똥호리라하더라

누가데이습일장

예수 눈썹들어부차적볼노써고에터디몰보다가쏘가난한파부돈
 두납너디늘보고즉시갈오되너실노너으게말하너니이가난한파부



의더이변비가못사람보담더만은거시테못사람은그남은키루써너
 더되오직이파보는족디못한데디닐괴구름다더단다하더라혹이성
 년늘알음다운돌파네물노써슈리호앗다말하니예수 갈으되이너
 의보년비물건이날이장차널으려한나돌이돌우에깃티미연시다물
 어틸이라하니못사람이몰이갈으되선신님어느셔여이거시이스며
 또이일이장차널을적에무순딩뇨이슬잇가갈으되너의삼가미혹디
 말나장차만이니일음을물음쓰고와갈이되너가키리스토라하리니
 그셔갓가운디라너의죽디말고또싸은학파난을듯기경동티말나이
 거시반드시민제이스되다못마즈막은사코안이러하고또갈으되보
 성이블이되성을덕하하며나라이나라을덕하하고샤이크게진동하
 여각곳에기황하고온역하며또무셔운것파크게딩뇨가하늘노붓티
 이슬니니다못이모든일전에사람이장차너일음을위하여너의를잡
 으며군박하며회당파옥에붓디며슬어왕후의압페닐을디니이거시
 너외게간증아되리라고로맛당이너의마음을명하여엇디써발명호



고미리싱각디갈나니장차너의를말직간파디헤를주립너의모둔디
덕헌년자능이결으며디답디못헌게홀디니장차부모형데와친척과
벗이너의틀판게벗터너의등에멧출취기교또너의니일음을위하여
못사람이미워헌되그러나너의한오리머리슬도힐티안올디니너의
참으무로써목숨을보전하라너의여루사람이군사의게돌난비되물
본즉그망헌미깃가운줄늘알나씨여유디여잇년자맛당이산으로도
망으며성게잇년자맛당이나가고밧게잇년자돌어오디말나이는형
벌너릴날이니클게괴룩한비다응헌게하라그씨여아빈자파젧에
기년자죄화이스문사에셔반드시큰죄앙파노헌미이뵈성으게밧출
디니데장차칼날에겁데여모둔나라에사루잡퍼가고예루사람이외
방사삼으게발피워외방사람의괴약이차메미출디니일월성신이장
차당노가이서사에셔모둔날아이곤고헌문바다파물결의큰소리로
씨상심헌고나칼마당낙담헌문두셔워장차세상게놀을뵈일을기디
리이니하르게형세가진동헌미라씨여반드시인자권세와큰영화로



써 구름을 타고 오물 보리라 이런 일이 척나자 맛당이 몸을 썬며 머리를
들문니의 속홀 날이 갓가우디라 하고 이여 비사를 말하 여 곧 되니의
무화파와 모든 남우를 보라 방야으로 임나녀 서는 너의 보고 너를이
무갓가 눈술을 알디니이 갓티 너의이 모든 일을 보즉 하느님의 나라
갓가 눈술을 알나니 실노 너에게 말하 너니이 세터가 더너가 더 못하
이일이 다일우리라 텃더가 업서 텃도 오식니 말은 업서 더더 안으리라
너의 맛당이 스서로 조심하라 너의 마음에 빈부루며 취하며 깃사년모
든 네 베풀어 놓니워 그날이 갑작이 너의 함정갓티 남홀가 하니이 갓티 반
드시온 사의 거한 사람이 게 넘홀디라 다 못씨여 늘 빌어 너의 능히 장차
올모든 일을 피하고 인사의 압페서 게 하라 하고 예수 나진 죽성던에
서 곧으치고 밤인즉 감남산에 수이니 못빅성이 발씨여 성던에 나아가
듯더라

누가 데이 습이 장

누룩금호년절소일음은 넘년절인데 갓가우니 모든 세사 당과 못선비



엇디써예수 죽이기를도모호문외성호우셔워호미라셔셔시란이
유디오게들어가니곳이스카롯이라칭호년엔열두데자의한나이라
이여가모둔제사당파동간으로더부러엇디예수 잠악죽이기를의
논호미테덜이즐거워온주기를작덩호니유디허락호표뭇사락업슨
괴미를차차써삼아주려호터라누룩금호년호이오니년절연접년
셔라예수 피를보안기를보디보갈호되너의가년절연식을예비
호보우리를먹게하라호니갈호되우리호어노곳게가예비코자호너
니잇가갈호되너의성계들어갈셔셔반드시물동계돈사람이너의를
만닐디니쫓차들어가년집계들어가집유인게늘호되셔싱이네게뭇
기를너데자로더부러년절연식을먹을노방이어더잇디나한즉반드
시호실한큰나락날디오게보이리니거기셔예비하라호라이여가파
연그말한비갓디간디보이보년절연식을예비호너카셔늘으려뭇
게인즈의별두몸데자함게호니예수 놀디갈호되너싱이호고자호
년디시너의파함게이년절연식을히밧기전에먹으미호너너오게



할고노니 다시 거슬 먹디 안꼬 그하느님의 나라 일우에 밋츠리라
 하고 이 여잔을 바다 속 슈하고 갈으되 이 거슬 가져 각기 논으라 너의
 깨알고노니 다시 포도나무에 나년 밋을 마시디 안꼬 하느님의 나
 라 남고에 밋츠리라 하고 또 석을 가져 슈하고 떼여 주어 갈으되 이는
 너의 몸인데 너의 위여 주어 시니 이를 힘여 나를 괴록 하라 하고
 역은 후에 간을 또 한 갖티고 갈으되 이 간은 식언약이니 너의 이를
 위여 흘닌 피로써서 허겨시라 못나크 팔손이 나까 함게 상에
 이스니 인자 반드시 전에 영하비 갖티 세손을 비리되 오직 과년 그 사람
 움직 회이스리라 하니 데 지서 루물어 누가 장차 이를 흘고 하더라 또 서
 루 그가운데 누가 크 놀다 투니 예수 날너 갈으되 인방게 왕이 그다 스
 리 물쥬고 권세를 잡은 자는 온쥬를 칭하되 오직 너의는 그러티 안으
 니 다 못너의 가운데 크미 된 자는 맛당이 어 린 것 갖고 주인이 되년 자는
 맛당이 허인 것 들디 니 누가 크미 되라 듯게 간존자 나사 환하년 자 나 듯
 게 인존자가 크미 안이나 오직 너의 가운데 사 환하년 자 갖트니라 너



의는나를환난중에셔나디안아스니나라오로써너의를봉호기를
너의아밤이나봉호신것갓디호여너의루니라듯게음식게호고도
위여안저이살일열두지피를판죄게호리카호고시무시몬아사탄이
너를차자살이기를밀갓디호고자호나오직너를위호여벌어너의미
드무로호여금업서디디안게호여회기한후게너의동심을곳건게호
리라호니같은되주너주를함게호여옥파죽년데닐으기를등디호
너이다호니같은되피틀아니네게말호노니오늘말우더못호여세번
나들아더못한다호리라또같은되너너의를전디도업고자루도업고
신노업시보낼셔여는너의이즈리던비잇더나같은되업터이다같은
되이제는전디잇년자가지고자루도또한그리호고칼업슨자는가이
오슬과라칼늘사라너너의게말호노니클에닐은비데죄인으로베겟
다한말이반스시너게일을거시나를같은친비가찾디이스미라호니
대자같은되주칼들이어기였나어다같은되죽호고호터라예수
다가전까갓디감남산에가미데자죽추니그곳에닐으러데자게볼너



곧으되 너의 비리 미혹에 들놀면 하라 하고 이 여씨나 몰려 더 너의 만
 밀니 사려 비리 같으되 아바니 아바니 만약 즐기시면 즉시 잔을
 디너가 게 하소서 비록 그러나 너의 뜻으로 안코 오직 아바니의 뜻으로
 일으소서 하니 텨사 하늘 노릇 타나 전장 게 하더라 또 심이 절통 하
 여 빌기를 더옥 간절 하니 샴이 피방을 갖티 사 에 너려 디 더라 빌
 다 하고 빌어 데 자의 게 나 아와 그 근심 하여 각 물 보고 같으던 었다 자 너
 나 날 어 나 빌어 미혹에 들놀면 하라 하더라 말 호 셴 여 허다 한 사람이 날
 으고 또 열 두 데 자 게 한 나 유다 노 암 폐 하 여 예수의 게 나 아와 입을
 맛 주니 예수 날 같으되 유다 너 입 맛 추 무로 써 인 자를 파 너 나 하니
 자 우 장 차 이 슬 일을 보고 같으되 주 우리 칼 노 써 티 리 잇 가 하 년 데 그
 동 세 한 사 람 이 제 사 당 의 종 을 녀 그 우 권 리 를 삭 그 니 예수 같으되 이
 갓 트 니 너 려 두 라 하고 기 여 그 귀 를 민 저 곳 티 고 예수 온 비 모든 제 사
 당 파 성 텨 동 군 파 당 노 게 같 하 여 같으되 너의 나와 셔 칼 파 몽 동 이 로 써
 도 적 잠 음 갓 티 호 너 나 너 날 마 당 너 의 파 함 게 성 텨 게 이 슬 적 에 는 너 게

손을 놀리디 안아스나 이제는 너의 씨니 어두운 권세라 하더라 데달이
 예수 를 잡아 끌고 제사당의 집에 붙으리 피들이 멀니 좃차 못사람이
 들 악게서 불뿔코안 것년 데 피들이 또한 그사이여 안즈니 한 배종이 그
 불빛출향하여 안즈 볼 보고 눈을 부워 같으되 이 또한 예수 를 함께 한
 자라 하니 피들이 비반하여 같으되 베인야 너 아디 못한다 하더라 이 잇
 고 또한 사람이 보고 붙으되 너도 그 물이라 하니 피들이 같으되 사람이 아
 안이라 하더라 편시여 또한 사람이 힘써 말하여 같으되 사람이 실노
 함이 한 거시 가 너 사람이라 하니 피들이 같으되 사람이 아디 말하년 리
 를 가더 못하노라 말하세 달기 우년 디라 주 피들 놀도라 보니 피들이
 이여 주의 눈은 비달올기 전에 네 장차 세 번 나를 비반하리란 말을 심
 각 하 고 이여 밤게 나가 통곡 하더라 예수 의 키년 자 희롱하여 티며 그
 눈 놀가 리우 고 붙어 같으되 너를 티년 자가 귀냐 너 말하라 하며 또 여러
 말노쳐 목하느니라 아춤에 외성의 당노와 제사당과 선비 다 모야 끌고 공
 회에 붙으리 같으되 네 안약 키리스토 연우리게 고하라 하니 같으되



너만약 너의게 고하였던 안꼬만약 너의게 물으면 대답이 안으리라
이 후에 인자 장차 큰 권세 잇는 하나님의 우견에 인드리라 하니 다
갈으되 그런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 갈으되 너의 말하였다
니 다 못사람이 갈으되 었다 사로 간증을 쓰라 스스로 그 입으로 들
었다 하더라

누가 데이 삼장

못사람이 불러 나 피나 토으게 슬고 사송사 하여 갈으되 우리 사람을
보니 뵈성을 미혹하며 기산으게 밧티 년세를 금호 스스로 키리스토
라 왕이라 하니 다 하니 피나 토출어 갈으되 네가 유대 사람의 왕이
냐 대답하여 갈으되 다 인이 말하였니 다 하니 피나 토모든 제사 당파
뵈성으게 불러 갈으되 너 이 사람이 무슨 죄기 스물보다 못하였다 하니
못사람이 더욱 힘써 갈으되 데 뵈성을 소동케 하며 갈을 오은 유대 예년
하여 가니 너로 부터 어 기 날으러 너 이 다 하니 피나 토듯호 물으되 이
가 니 너 사람이냐 하니 그 헤롯의 권세에 부튼 줄 알고 즉시 헤롯으게 보



너니서 거 해롯이 예루사렘에 잇던 디라 예수를 보고 심이 즐거호운
만 기일을 듯고 오리 보고 자호며 또 그 한 당도 행호년 것 보기를 바리미
라이 여 열어 말노 처 물으되 예수 더 답호년 비 업호리 모준 제 사 당 파
션 비 서서 힘써 송사호니 해롯 파 그 군 사 달이 멀시호며 희롱호며 화복
으로써 입 피고 다시 피나 토게 보너니 피나 토는 해롯으로 더 부러 불너
원 슈로 당 일에서 루 벗한 다라 피나 토 모둔 제 사 당 파 뵈 성을 모우라호
고 불너 갈으되 너의 이 사람으로써 너게 슬어와 그 뵈 성을 요란케 한 다
말호너니 너의 송사호년 비로써 너의 압페셔 사실호여 스되 그 죄이
스물 모더 못호엿다호고 해롯이 또 한 그리호여 도루 보너여 스니 데 죽
을 죄 거 합고 디 간논 디라 고로 너이 제 체 티호여 노우리라호니 못사 람
이 일 세기 불너 갈으되 이 사람 불너 리고 바라 바를 노와 우리를 주 소셔
호니 바다 바는 성 항에서 난 늘 지어 사람 늘 쥐기 고 옥에 갓 탄 자라 피나
토에 수를 못고 사호여 다시 못사 람을 권호되 다 못 못사 람이 불너 갈
으되 습직 틀에 못질호 소셔 습직 틀에 못질호 소셔호니 피나 토 세 번 말



하여갈으되테무순악을행하였느냐너그죽을죄를보다못하였다고
 로체티하여갓짜하니못사람이큰소리로간절이구하기를습지들
 에못질하라니테덜이소리승하였너다라이여피나토그구하년
 갓티당안고고이여난지어살인하고옥에갓틴쟈를노우니이느못서
 람구하년비쟈라예수를 못사람으게붓티문그뜻을좃추미라못사
 람이글고갈써여쿠리니사람시몬이밧트로붓티오니못사람이잡아
 습시들늘그우에두고하여금지위예수를 좃추니수다한빈성이좃
 고노벌어부인이이서가슴을티며동곡하거늘계수 돌아보와같이
 되예루사람에비인아나를위하야우디말고오직자기와직식을위하
 여올라날이장차볼으니사람이반드시말하되아가지디못하며아
 닛티못하며젓게기디못한부인이복이라하고그써여사람이장차산
 파닐너갈으되우리게디머디라하며두던파닐너갈으되우리록덤푸
 라하고퍼런남우에오이러이갓티행하거던마른남우를잇키하라하
 터라도두죄인을살고예수로 터부러함게죽이려하더라하곳에닐

으니 일음은 두 끝 잇년 곳이라 죽시 습식 틀에 못질 하고 또 두 죄인을 한
나 온 우견에 하고 한 나 온 자 견에 하더라 예수 같으되 아바니 이 사람
덜을 사 호 소서 그 홀비를 아 더 못 하 너 이 다 하 터 라 이 여 제 비 호 여 그 못
슬 온 우 니 뵈 성은 서서 보고 판 당은 비우서 같으되 데 다른 사람을 구원
하 여 시 니 만 약 하느님의 키 리 스토 요 쎌 비 자 면 가 이 스서 로 구 원
하 리 라 호 고 군 사 덜 이 또 한 희 롱 호 나 아 와 초 틀 가 저 다 주 며 같으 되
데 가 만 약 유 디 인 의 왕 이 면 스서 로 구 원 하 라 호 고 그 우 에 방 을 써 같으
되 이는 유 디 인 의 왕 이 라 호 었 터 라 함 게 못 질 한 죄 인 에 한 나 이 육 호 여
같으 되 너 키 리 스토 가 안 이 나 자 괴 와 우리 를 구 원 하 라 호 니 오 직 그
한 나 이 최 망 호 여 같으 되 너 함 게 혁 벌 을 밧 으 면 서 오 이 러 하느 님 을
두 켜 워 안 너 나 우리 는 맛 당 한 거 시 바 들 비 요 흥 한 비 여 합 당 호 되 오 식
이 사 람 은 흥 한 비 가 올 터 안 으 미 업 다 호 고 이 여 블 너 같으 되 예수 나
라 에 나 아 갈 셔 여 나 를 싱 각 호 소 서 호 니 예 수 같으 되 너 실 노 비 게 말
호 니 니 오 들 너 반 드 시 나 파 함 게 즐 거 운 사 에 이 스 리 라 호 터 라 그 셔 가



오시동게오온싸이어두위미시말게닐으리날이그름하며성년당막
 이절반이직여디니예수 큰소리로불너골으되아바니닌영혼을아
 바니손에부탁호니이다말을다호고괴유이쓰너디니라과총이그일
 을보고영화를하느님으게 돌너골으되이실노을운사람이라호고
 모야구경호던못사람이이일을보고다가숨을티며돌아가고그아년
 자와잇가니닌로봇터함게죽던부인우멀니셔셔보더크한사람의일
 음은요섭이니정승이라사람되미어덜고또을운디라유너의아니마
 터고을에못티스되테의도모호며지은비일에참여티인게불너하느
 님의 나라를기더리년자라이사람이피나토으게나아가예수의
 사신을구호여취호여너리위가는비로써싸돌에판무덤에두니종너
 장사한사람업스네터라셔는예비호년날이니시뻗일이거의닐은디
 라가니닌로봇터예수 파함게오문은부인이뒤를쫓차그무덤파어
 드게시신두볼보고이여도라가향교와물약을예비호여스되시뻗일
 을당호여게명을쫓차수이더니



두가 데이 습사장

사뵈 후 첫날 밭씨여 갖춘 비향노를 가지고 무덤에 날으리들을 무덤에
서 굴너 노으물 보고 들어가 주계수의 시신을 보디 못호고 위호여 두
데 흘씨여 두 사람이 빗난이 복음 입고 켜테서 스니 부기델이 놀너 여씨
에 업네 니 두 사람이 날너 갈으되 잇디 산쟈를 죽은쟈의 가운데 찾너냐
데 어긋 잇디 안코 날너 나스니 케가 니너 케이 슬씨여 너의 게 날은 갈이
인사 만느 시죄귀의 손에 가슴 직틀게 우질호였다 가 케 삼일만에 다시
날갓다 호를 심각호라 하니 부인델이 이여 그 날을 심각호고 무덤으로
못터돌라 가 다 일노 씨 열한데 자와 모둔데 자게고 호니 몸데 자게고 호
년 사는 기막카닌이 마 리암파 요안닌이 야꿈의 오맘마 리암파 항게한
비물은 부인이 터라 그 말노 씨 허란 호를 삼아 잇디 안이 호되 피들은 날
여 누덤에 다스 가 굽어 오직 가는 비둔깃만 보고 만년 비를 괴기이 베키
도라 오니라 그 날에 두데 자한 마올에 가 년테 일음은 임났이니 예루사
렘에서 이 습오리라 서 루만년 비모눈 불 불말호여 니 약이 호씨여 예수



갖가와 함께 행하되 두테 자는 이 아득하여 아디 못하게 하코 예수
 빌디 같이 되니 의행하며 서 루무순일을 말하되 나 하리니 한나 일음은
 기노와 나 디답하여 같이 되니 예루사렘에 나가 베딘 여호를 노이사이
 잇년 디일을 아디 못하되 나 하리니 같이 되며 루무순일이 노각이 되나 살일 제
 수의 일이니 못하되 나 하느니라 못복성의 악의셔 팔 나 나 나
 능히 미잇다 하여 우리 모든 세사 당파 관당이 못버 죄를 명히 여습지들
 에 못실하여 시되 오직 우리는 그 이산 일 사람 속하기를 바라엿더니 이
 제일 날은 디사 홀인데 우리 동계 두어 부인이 우리를 괴이케 하문데 덜
 이 밭시여 두덤게 가 그 신을 보디 못하코 과코 하되 단사 나 타나 그 살
 앓다 말호 불 보코 우리 앞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마연 부인의 말하되
 갖티 오직 예수를 보디 못하를 인하미라 하니 예수 말으리 민한자
 야 그의 마음에선 그의 말 안키를 디디기 나 나 리스 토나 맛강기 이
 갖티 하를 밧코 그 영화에 나가 사디 안으라 하코 이 여모쇼근 못티 키르
 하여 모든 선디스 게 밧처 무를 글에 쓴 비야 그 같이 친일을 다 지세 이 강

51



논호고갈마을이갓가우미예수 사로헝고자호년것갓트니두테자
 가강청호여갈노우리로터부러헝게뉴호라호문써저무러날이이
 무기우놀입호미라이여들이가함게뉴호년테터부러듯기안존써여
 썩을가져축슈호고써여주니누테자의눈이곳열녀이어아니예수
 문득보이디안년디라두녀저서루블디고되길여셔우리로터부러
 말호녀영을히리홀써너우리마음이엇디싸디안앗년냐호고즉시
 날어케루사럼게들이가별한테사파함비호년사람모인테를만년
 주 파년크어시몬으게낫다극말호너늘두테사또하길에서만년
 비와썩을써너예수 안일을고호너라말홀써여예수 그가운데서
 서갈으되너의평안호라호니못사람이경동호고무셔위호여영혼을
 몬가호니예수 갈으되너의엇디황망호고마음게의심호너냐니손
 파발늘보라이니로다나를위져보라영혼은써와고기가업서도너의
 보기부나근잇나호퍼이를알호고슈죽으로써보이디테자즐거우물
 귀호여밧기안고또고기비길써여예수 갈으되너의어긋력을거



시 잇디냐 하니 이여 구운 줄고 가 하 주를 주니 예수 가 지 그 압페셔 되
고 갈으 되 닐사 로 너 의로 합게 하 너 의게 말히 빈모 쇼의 놀네와 셴디
의글파 밋시 편에 귀 록한 빈나를 갈으 친거 시다 반드시 응합히 리라 하
고 이여 그 총명을 열어 모든 성경을 씨 밧게 하 고 또 갈으 되 글에 이갓터
말하 여 시니 키리스토 가 이갓터 히를 밧앗다 가 데 삼일만에 죽우 무
로 못터 다 시볼어 그 일음을 부락 하 여 회기와 죄샤 하 너 거 슬만 국에 면
홀데 예루사 렴으로 못터 비롯 하 가 시니 너 의는 이 일에 간증이 라 너 의
아 밤의 허한 비로 써 너 으게 보 너 니 성에 거 하 여 능 하 미 우리로 못터 너
의 주 볼기 디 리라 하 고 이여 인도 하 여 빈디 니 여 볼으 리 손을 들어 축슈
하 터 라 축슈 홀 씨 저 디 나 들니 워 하 늘 노 올나 가 니 못사 람이 절 하 고 심
이 즐 거 워 예 루사 렴에 돌하 가 늘 성년에서 하 느님을 칭찬 하 터 라



Faint,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강령편

법됨데는 예수교계드년법이니몰노써하니라

할데는 예수전 유대국교에드년법인데시조암라함이셔윤비라
사밧일은미늘게예할우식쉬이년법이라

년년절은이살일보성이의굽국계나오던셔를싱각하년날이라

유대는이살은의남여국명인데로마에부투니라

예루시렘은유대국셔올니라

성년은 하느님개절하며제하년곳인데에루사렘에잇니라

사마라는유대북편인데로마의하도명이라

가니너는사마라북편인데또한로마도명이라

로마는한고을인데넛적에모는세국의웃듬이라

발이신은모쇼의피에부터년데턴사파병호파죽었다다시닐물밧년

거시오 사토기도또한모쇼의피에부터년데턴사파병호파죽었다

다시닐물밧다안년거시라

재사관 하느님의게세된이년외문의라

Faint,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page.



Cowan

5253

Luke

1st. Edition

8/9/04

BS
315
.K62
1882ad
c.3



(재)대한성서공회
KOREAN BIBLE SOCIETY

<http://www.bskorea.or.kr>
© Korean Bible Society